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현명함을 몰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0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5월 18일)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직원 간 고소·고발 하며 갈등 격화로 정상화 난항

[기획] 표류하는 나눔의집
상 본질 벗어난 감정대립
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둘러싼 운영 논란이 내부갈등으로 번지며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나눔의집 사태의 시발점이 된 내부제보 직원들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기존 직원들, 법인 이사회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고용한 운영진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조직이 양분화되고 업무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시 ·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난 운영부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오히려 내부제보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히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감정대립만 격화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태의 본질인 운영 미비에 대한 개선은 커녕, 내부 갈등으로 인한 또다른 시한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나눔의집을 둘러싼 여러 논란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 · 법인의 운영부실이다. 광주시청 감사 및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 등에 따르면, 나눔의집은 횡령 등 심각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후원금, 회계 관리 부적정 등으로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운영미숙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측은 감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6월 2일 이사회를 통해 정관과 운영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이어 경기도청 특별지도점검 결과를 비롯해, 내부제보 직원들의 고발에 따른 이사 스님 4명에 대한 수사협조 및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나눔의 집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시각이 많다.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내부제보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 업무 지시 불이행, 업무 인계 거부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되레 전보다 더 비정상적인 운영 상태로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회계 및 CCTV 열람 권한 등이 대표적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나눔의집 시설 회계는 시설장 결제 없이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확보한 내부제보 직원 일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법령상 시설장 권한으로 규정된 시설 내 CCTV에도 시설장 모르게 도어락이 설정되는 등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양분화된 직원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고소 · 고발사태가 잇따르는 등 사태 수습보다는 감정대립으로 인한 새로운 문제들까지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사태의 본질인 운영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되레 또다른 논란만 낳으며 정상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안신권 전소장의 후임으로 새로 고용된 우용호 소장은 광주시청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었던 시설과 법인간 회계 · 인력 · 공간 분리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부 제보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역사관 학예사와 법인 직원 등 생활시설 관계자가 아닌 이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사회복지 시스템 접속체계를 직무별로 전환한 것에 대해, 내부제보 직원들이 '보복성 업무배제 조치'라고 주장한 것이다. 직원 간 갈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내부제보 직원과 다른 직원들 간 마찰을 빚으면서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시설 내 카메라와 녹음기로 서로를 감시하는 등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법인과 시설 회계 분리를 위해 새로 고용된 법인 회계과장은 입사 이후 2달간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제보 직원 중 한명인 기존 회계 담당자 A씨가 이에 대한 권한을 인계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법인 관계자는 "A씨가 통장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제반물품을 인계하라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회계 관련 법인에 대한 보고의 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내부제보 직원들이 언론 인터뷰 내용을 이유로 다른 직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직원 제보로 촉발된 논란에
운영부실 등 문제점 드러나
법인, 개선 작업 착수했지만
내부갈등에 막혀 사태 악화
사태 확대 · 장기화 우려 제기

이런 까닭에 사회복지계 관계자들은 나눔의집의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나눔의집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정명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뼈를 깍는 노력으로 다시 신뢰를 쌓는 것"이라며 "내부제보자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그들의 의혹 제기를 시작으로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불교복지계 전문가는 "사회적 이슈인 만큼 관할 지자체나 수사기관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논란거리가 양산된다면 호미로 막을 일, 쟁기로도 못 막을 만큼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갈등구도로는 나눔의집 운영이 정상화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6월 28일 해수관음보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사부대중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해수관음보살상을 제막하고 있는 모습.

부산 영도에 해수관음보살상 '우뚝'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6월 28일 해수관음상 봉안법회

높이 4.8m, 중량 10.5t
석재는 영주석 사용돼
뒤편엔 대행 선사 법어

태평양 관문인 부산 영도에 천 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를 살피고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해수관음보살상이 우뚝 세워졌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6월 28일 해수관음보살상 봉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봉안된 해수관음보살상은 높이 4.8m, 중량 10.5톤으로 석재는 영주석이 사용됐다. 좌대 높이는 2.5m로, 연화좌대와 중대석에는 네마리 용과 구름의 운용문이 부조됐다. 또한 상대갑석에는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의 대행 선사 가르침을 새겨 넣었다. 해수관음보살상 뒤편에는 대행 선사의 법어가 병풍석 형식으로 조성됐다. 높이 2.9m, 길이 22.8m인 법어 병풍석에는 문수 및 보현보살상과 금강역사상, 대행선사 법어 10폭이 새겨져 있다.

법회에는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주지 혜솔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해 전국지원장 스님들과 박해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회장 및 본원, 지원 신도회장, 임원진 등 1천여 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이날 법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으며, 현장에 참석한 대중들은 모두 코로나 예방 수칙에 동참하고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해수관음보살상이 지닌 자비행을 신도들이 앞으로 적극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혜수 스님은 "해수관음보살상 불사는 부산지원 불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수관음보살이 도량을 수호하고 자비의 에너지로 인연이 된 모든 생명을 굽어 살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부산지원 게시판에 쓴 '해수관음보살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빙긋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문구처럼 해수관음보살님의 마음과 미소를 내면에 지닐 수 있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큰 스님 말씀을 받들고 불사하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다. 주저앉고 싶거나 물러나고 싶을 때마다 큰 스님 가르침과 신도님들의 믿음과 정진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이처럼 불사가 마음공부를 점검하는 내면 불사와 둘이 아니니 앞으로 도량을 찾는 이 누구라도 삶의 고를 녹여나가고 세세생생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도량을 가꾸고 정진의 에너지를 채워나갈 수 있길 발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부산지원 재가 불자들은 발원문과 봉행사를 통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한마음의 도리를 알고 더욱 정진하는 불자들이 될 것을 다짐했다.

박해일 부산지원 신도회장은 "해수관음보살님과 둘이 아닌 한마음이 되는 길을 일러 주신 대행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자비심으로 우리 모두 마음의 차원을 높여 자유인이 되도록 열심히 수행 정진하자"고 말했다.

이동진 여신도회장도 발원문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이 해수관음보살님의 감로수를 양식 삼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일체 근본서 나고 듦의 진리를 알아 한마음으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외에도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신도들을 대신해 해수관음보살상 제작을 맡은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 윤재현 보광석재 상무, 윤태욱 TM개발 대표에게 감사패를 각각 증정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해수관음보살상은 2008년 법당 왼편 언덕 위에 해수관음보살을 모셔도 좋다는 대행선사의 유지에 따라 시작됐다. 2013년 1월 보광석재에 설계를 의뢰, 2016년 8월 영도구청으로부터 종교 시설 증축 부지조성 개발 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또한 2016년 12월 기초공사와 해수관음보살상 조성 위치를 확정키 위해 참배단 주변 바닥 토사를 파내던 중, 모래지반 속에 반구 모양의 큰 바위가 발견돼, 별도의 토목공사 없이 그 위에 해수관음보살상을 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후 2018년 1월 해수관음보살상 뒤편에 대행선사 법어 10폭을 새겨 넣은 '법어병풍석' 불사도 함께 진행했으며, 2020년 6월 완료 후 28일 준공 봉안 법회를 갖게 되었다. **부산=노덕현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승려복지, 승단·사회 변화시키는 불사”

인터뷰

승려복지제도 시행 10년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2011년 10월 1일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된 후, 햇수로 꼭 10년을 맞았다. 승려복지는 조계종의 오랜 숙원과제로 거론돼 왔지만 재정과 인력, 제도 등 여러 이유로 현실화는 쉽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2010년, 마침내 조계종 33대 집행부는 승가복지TF팀을 꾸려 승려복지제도 마련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승려복지법을, 8월에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승려복지제도는 종단이 직접 스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운데, 병고 등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기도와 포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다름 아니었다. 이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승려복지제도는 첫 시행 이후 10년간 조계종의 현실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 왔다. 애초 65세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정했던 복지제도는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로 확대됐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제도의 틀 속에서 보편적 승가복지를 구현할 토대를 구축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일궈냈다. 병고에 고통 받는 스님들을 위한 의료비·치료비 지원은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및 요양비 지원까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나아가 7월 1일 새롭게 시행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는 종단 소속 스님들의 신뢰를 토대로, 보다 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승려복지제도 시행 10년, 승가 미래를 위해 또 다른 토대를 준비하는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 의미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인터뷰 1문 1답.

▲지난 10년간 승려복지회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가장 큰 성과와 소회를 밝힌다면.

“우리 종단에 소속된 스님들이 조계종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승려복지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다. 2020년 상반기 현재 2400여 명의 스님들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입원진료비·요양비는 지난해 기준 416명 스님에게 707건, 총지원금액만 1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쌓이면서 종단을 향한 스님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승려복지제도를 추진하신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제도의 기틀을 확고히 세우고 확대하신 총무원장 원행 스님, 동참하고 지지해 주신 교구본사 주지 스님과 종회의원 스님들, 10년간 지속적으로 실무에 힘써온 종무원들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다.”

▲종단 스님들의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혹은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전체 스님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본 바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승려복지 지원을 받는 스님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된다. 종도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주변 스님들께 종단의 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에는 종단에 분한신고한 스님 가운데 90% 이상이 동참, 신청서를 작성했다. 승려복지제도를 향한 종단 스님들의 두터운 신뢰에 재차 감사드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017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시작했다. 국가제도를 활용해 종단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스님들의 노후를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의미와 해결과제는.

“우리 스님들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 등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율이 18% 수준으로 타종교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만 65세 이후 평생 동안 지급될 뿐 아니라, 월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지급되는 매우 좋은 제도다. 승려복지회는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통해 스님들은 일반인들보다 보험료를 낮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 스님 중 약 40%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은 스님들이 개별적으로 지역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종단에 지원을 신청을 하는 방식이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정책적인 협의를 거쳐 종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특례가입사업장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법개정 통해 입원진료비, 요양비 등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우선 입원진료비 지원이 크게 늘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일산, 경주, 분당)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급병실료를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외래진료비(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만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급여비도 재가요양까지 확대했고,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치료시 본인부담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예방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밀건강검진비와 예방접종비 지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스님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 숙원과제인 승려복지
1년간 준비 끝에 2011년 시행
종단이 스님 노후·병고 책임

승보공양은 확고한 운영 토대
7월1일 본인 부담금제도 시행
분한신고시 스님 90% 신청해
“종단 향한 신뢰에 부응할 것”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승려복지제도는 우리 종단스님들이 수행자의 본분사인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7월1일부터 실시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의 골자와 의미는.

“본인기본부담금 제도의 골자는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께 월 1만원(구족계 수지 5년 이하는 월 5천원)의 부담금을 수납해 승려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승려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종도로서 소속감을 고취하고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자 한다.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기본분담금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해 현실화를 이끌어 주신 종회의장 범해 스님과 여러 종회의원 스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려노후복지에서 교구본사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가. 또 교구별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현장에서 직접 대상스님에게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교구본사다. 승려복지체계가 탄탄한 화엄사와 용주사, 신흥사 등 교구본사별 모범사례를 발굴해 타교구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그 일환으로 종단 차원에서는 교구별 편차해소를 위해 교구승려복지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승보공양은 승려복지제도의 굳건한 기반이다. 현재 후원자 수는 몇 명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나.

“승보공양 후원자는 약 5000여 명 정도로, 연간 약 5억여원 정도가 승려복지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이렇듯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탈종교화 시대를 맞아 불자와 출가자 모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면면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승가복지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승가공동체, 진정한 사부공동체가 구현될 필요가 있다. 승보공양은 승단을 외호하는 또 하나의 불사이다. 승재가 모두의 자발적인 후원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승려복지기금을 만들어 나가는 토대가 된다. 스님들이 직접 나서 1인 1불사를 권선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다. 만 명이 모이면 그 자체로 제도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당부 드린다.”

▲저출가·고령출가 현상으로 만65세 이상 스님 비율이 2024년에는 36%, 2034년에는 55%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있다. 언젠가는 닥쳐올 종단 초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

“복지 및 의료영역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종단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불교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통해 노환이나 병고로 사찰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스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사회보다 더 급속도로 진행되는 스님들의 초고령화를 대비해 노환이나 병고로 사찰 내에서 돌봄이 어려운 스님들이 임종까지 승가의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안정적인 돌봄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 불자들의 고령화에 대비한 불교전문요양병원, 요양원의 건립도 절실하다.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일환으로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추진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승려복지회의 향후 운영계획과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승려복지회의 확고한 목적은 종단 모든 스님들이 병고나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승가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때문에 승려복지의 안착은 곧 승속이 함께 서로 도움을 주는 가운데 나를 바꾸고 승단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불사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사부대중의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승려복지는 순항하기 어렵다. 스님들이 주인이고 우리 불자님들도 함께 해야 하는 불사이기 때문이다.

승려복지회는 교구본사 울타리 안에 있는 비구스님은 물론,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 비구니스님들도 종단에 의탁해 여생을 회향하시도록 더 세심히 살피겠다. 출가수행자로서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도록 종단이 더 노력하겠다.”

진행=김주일 편집국장 kimji4217@hyunbul.com
정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문화재 '선의취득' 조건 강화 필요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1. 차별금지법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3. 문화재 도난 관련 법령
4. 사찰 제세 관련 법령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06년 9월 25일 삼성문화재단은 "현등사 사리 및 사리구 일체를 사찰 측에 반환하기로 했다"고 조계종과의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반환이 성사돼 이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지만, 과정에는 지리한 법정 공방이 있었다.

현등사는 앞선 2005년 8월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사리 및 사리구 일체가 도난당한 것이라며 반환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현재의 현등사와 구 현등사는 다르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가 패소 사유였다. 정작 문제가 된 '도난문화재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회피한 판결이라 불교계 안팎의 빈축을 샀다.

당시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에서 쟁점은 △도굴품 인정 여부 △선의취득 성립 여부 △사리구 표기 '현등사'와 현재 현등사의 동일 인정 여부였다. 도굴품 부분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도굴꾼 서 모씨가 자신이 현등사 사리구를 훔친 장본인임을 증언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를 않았고,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도난문화재 있어서 '선의취득'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선의취득'은 민법 제249조에 명시된 것으로 장물인지 모르고 '선의로 과실 없이' 구입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제해주는 법조항이다. 하지만 도난문화재 문제로 넘어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소유자 "장물 몰랐다" 버티기, 검찰 '악의취득' 입증 어려움

증언 아닌 구매자료로 확인을… 현 공소시효 기간 연장돼야

2005~2006년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삼성문화재단의 '현등사 사리구 소송'과 한국불교미술박물관(현재 폐관)의 '백양사 영산회상도' 문제의 공통점은 모든 소유자가 '선의취득'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15년이 지금 지난 지금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하지 않는다"고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법정에서 소유자가 도난문화재를 선의취득이 아닌 '악의취득'을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래 전 이뤄진 절도 행위들이고, 여러 번에 걸쳐 소유자를 바꾸면서 선의취득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소시효다. 현재 문화재 절도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형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 일부 문화재매매업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검거된 문화재매매업자의 사례가 그렇다. 그는 2001년 입수한 〈삼국유사〉권제2 기이편 1책을 15년 간 은닉하다가 빚을 갚기 위해 경매에 내놨다가 도난 문화재임이 확인돼 검거됐다.

A씨의 경우 공소시효를 잘못 이해해 다행히 〈삼국유사〉가 돌아올 수 있었다. 문화재 절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은닉죄는 숨긴 시점이 끝난 순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의취득 조항으로 인해 도난문화재임을 입증 못하면 범인은 잡아도 문화재는 환수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조계종을 오래 전부터 선의취득 개선과 공소시효 폐지·연장을 주장해왔다.

조계종은 주장하는 법 개정 요지는 "문화재 유통 시 선의취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은닉 행위자가 출처확인 및 취득 경위를 자료로써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등의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 일반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는 25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불교문화재들은 대부분 1970~80년대 도난된 불교문화재다. 도난문화재가 선의취득이 아님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소유자에게 문화재 구매이력과 취득경위를 문서 자료로서 선의취득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정각회 출범… 이원욱 회장

6월 29일 창립총회 개최

부회장 이종배 의원 등

정각회원 40여 명 활동



제21대 국회 정각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새롭게 출발했다. 정각회를 이끌 새로운 수장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추대됐다.

국회 정각회는 6월 29일 오전 7시 30분 국회본관 3식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21대 국회 정각회장에 3선의 이원욱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이원욱 정각회장은 전반기를 맡아 정각회를 이끌게 됐다.

부회장은 이종배·이헌승 미래통합당 의원·이광재·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아 활동하게 됐다. 수석간사는 조명희 미래통합당 의원, 간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 감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제21대 국회 정각회 회원으로는 40명의 국회의원이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대 직후 이원욱 회장은 "국회에서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정각회가 나서서 보다 좋은 국회와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신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각회는 총회에서 오랫동안 정각회 발전에 노력한 4선이상 의원인 서병수·이명수·정갑윤·김영주·안규백 의원을 고문으로, 주호영 의원과 강창일 前 의원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정각회 창립총회에서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화쟁사상'을 주제로 법문하며 여야를 아우르는 화쟁의 정치를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前원로의장 종산 대종사 영결·다비식 엄수

전남 구례 화엄사서 종단

주요인사 800여 명 참석



영결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단 중요소임자,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각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화엄사 교구 스님 등 3000여 스님들과 8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큰스님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구례 화엄사는 지난 6월 2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23일 청주 보살사에서 입적한 조실 혜광당 종산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엄수했다.

영결식에는 종정 진제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종단 중요소임자,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원로의원, 각 교구본사 주지, 종회의원, 화엄사 교구 스님 등 300여 스님들과 전남도 김영록 도지사와 신도 등 8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해 큰스님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삼귀의 영결법요(인묵 스님), 행장소개(보광 스님)에 이어 종산 스님의 생전 육성법문이 행사장을 숙연하게 했다. 이어 영결사(원행 스님), 법어(종정 진제 스님), 추도사(세민 스님), 조사(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묵 스님, 중앙신도회장 이기흥, 전남도지사 김영록), 조가, 헌향이 이어졌다. 이어 화엄사 문장 명선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진제 스님은 "종산 대종사께서는 생사무상(生死無常)의 고통을 느끼고 출가를 단행하신 이래 본분사(本分事)인 생사해탈을 위해 위법망구(爲法忘軀)한 종장이셨다. 또한 종단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원로회의 의장의 소임을 마다하지 않은 대자비의 수행사(修行事)를 보이시어 후학의 귀감이셨다"라고 회고했다.

법어에 앞서 원행 스님은 영결사에서 "종산 대종사께서는 육신을 치료하는 의사의 길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납자의 길을 가겠다며 발심 출가하시어, 오직 참선수행의 길을 걸으셨으며, 범어사와 천축사 무문관에서의 용맹정진은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종단에 기여한 업적을 추모했다.

조사에 이어 화엄사 문장 명선 스님은 감사의 인사말을 통해 "영결식에 참여해 주신 사부대중에게 화엄사 문도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큰스님의 유훈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는 문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영결식에 이어 법구는 화엄사 대중스님들에 의해 경내와 일주문 노재를 통해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장례위원회는 6월 29일 화엄사 초재를 시작으로 7월 6일 화엄사서 2재가 진행됐다. 3재는 7월 13일 보살사, 4재는 7월 20일 화엄사, 5재는 7월 27일 태안사, 6재는 8월 3일, 막재는 8월 10일 화엄사서 각각 봉행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차별금지법 제정, 이번엔 현실화될까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

6월 29일 발의·입법예고

2007년 첫 발의 이후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던 '차별금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 발의됐다. 지난 13년간 6번 발의됐다가 폐기·철회됐고 20회 국회에는 발의조차 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이 이번 회기에는 입법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월 29일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의원 등 10인 의원의 공동발의자와 함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가능성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하고, 정의당 의원 6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각 1명과 함께 발의정족수 10명을 채우며 첫 고비를 넘겼다.

이번 차별금지법 입법 여부에 종교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여러 종교계 중에서도 선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입장표명으로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증오와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해,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불교계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1일 입법예고됐다. 번번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발목을 붙잡았던 일부 개신교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이틀 만에 반대의견만 6000건을 넘어섰으며(7월 2일 기준), 조직적인 반대운동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달리 각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같은 여론에 힘입어 이번 회기에는 입법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정치, 문화,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종교,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하고 악의적으로 차별할 경우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知興堂 白雲 大講伯 永訣式 奉行 感謝 人事

삼보전에 귀의합니다.

본사·범어사, 백양사 원로이시고 저희 은사이신 지흥당 백운 대강백의 영결식에 직접 참석하여 주시고 조문해 주시며 조화를 보내주신 사부대중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나,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49재 일정

• 초재	6월 25일(음 5월 5일)	10시	백양사(061-392-0100)
• 2재	7월 2일(음 5월 12일)	10시	용흥사(061-382-0574)
• 3재	7월 9일(음 5월 19일)	10시	미륵사(010-6508-4707)
• 4재	7월 16일(음 5월 26일)	10시	용흥사(061-382-0574)
• 5재	7월 23일(음 6월 3일)	10시	용흥사(061-382-0574)
• 6재	7월 30일(음 6월 10일)	10시	용흥사(061-382-0574)
• 막재	8월 6일(음 6월 17일)	10시	범어사(051-508-3122)

불기2564(2020)년 6월 27일

문도대표 진 우(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합장.

“연령 · 상황별 불교성전 추가 제작을”

이미령 기획위원, 7월 1일 포교종책연찬회서 제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성전은 보급과 함께 많이 읽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연령별, 상황별, 콘텐츠별 불교성전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을 앞두고 각 계층과 시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불교성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미령 불교성전 기획위원(북칼럼리스트)은 7월 1일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성전 활용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80차 포교연찬회에서 “현재 발간을 앞둔 불교성전을 모본으로 맞춤형 불교성전 콘텐츠 개발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획위원은 “가령 어린이들에게 불교성전이 적합한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는 그림책과 비디오용으로 따로 불교성전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불교성전〉 〈구연동화로 통한 불교성전〉 등 적합 주제를 따로 추려내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들에게는 외국어 공부와 병행할 수 있는 영어 불교성전, 스님들이 불교성전을 낭송하는 유튜브 콘텐츠, 장중한 느낌보다는 유머러스한 내용을 담은 불교성전이 좀 더 다가갈 것이다. 2030세대, 5060세대, 70대 이후 세대들과 각자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불교성전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성전〉은 조계종이 지난해 불교성전편찬추진위 발족 이후 발간작업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윤문과 감수과정을 갖는 중이다. 올해 10월 정식 발간 후에도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기획위원은 “정기법회, 군법회, 병원시설, 템플스테이 등에서 활용 가능한 상황별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획위원은 향후 맞춤형 불교성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도 내놨다. 이 기획위원은 인터넷 불교성전 개발에서 △위키디피아 형식의 자유로운 각주 △단어에 관련사진 팝업 제공 △백문백답 같이 질문에 답주는 프로그램 제공 △주제별 찬불가 연계 △듣는 불교성전 등을 제시했다.



이미령 불교성전 기획위원이 7월 1일 열린 포교종책연찬회에서 불교성전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 있다.

불교성전 발간 막바지 작업서
2차 콘텐츠 개발 필요성 제안
어린이용, 사경용, 전자책 등
활용 대한 전문가 목소리 모여

또 보급 방안으로 △포교사들의 유튜브 상 불교성전 주제 강의 △사경용 불교성전 개발 △지역별 불교성전 스터디 그룹 유도 △사찰 기본교육시 교재 활용 △불교성전 낭송, 사경대회 개최 △각국 언어별 불교성전 개발 등도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박유진 대불련 캠퍼스포교팀장은 “이번에 나올 불교성전을 1차 콘텐츠로 본다면, 앞으로 개발할 내용은 2차 콘텐츠일 것”이라며 “전자책 발간, 콘텐츠 공모전 활용, 인플루언서 콘텐츠 개발, 만화 · 애니메이션 · 게임 등 열린 콘텐츠 개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영동 기획위원(前 교법사)도 ‘불교성전의 발간 의미와 활용방안’에서 “모든 불자들이 불교성전을 수지하도록 수지운동을 벌이고, 각종 법회서 의식상 경전 봉독에 불교성전 봉독을 넣으며, 불교성전 해설사를 개설하는 방안, 사찰이나 단체별 불교성전 소모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이사는 ‘불교성전 보급과 홍보방안’에서 “불교성전 발간을 불교 중흥의 계기로 삼기 위해 불서읽기 원년, 수지독송 캠페인, 사경대회 등 종단적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발간을 위한 출판사 컨소시엄을 통해 좀더 양질의 성전을 펴내고, 최근 영향력이 강해지는 유튜브를 비롯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플러스 친구 등과 네이버와 이메일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 책을 필요한 곳에 발송하지만, 웹자보와 SNS상 홍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모든 종교활동이 그렇듯 불자들의 신행의 근본은 부처님 가르침이며 그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것이 경전이다. 통일된 불교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라며 “시대 흐름에 맞는 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발간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교연찬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소수의 인원만 참여했으며, 전체 진행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불교 성보 국보 · 보물 지정예고 잇달아

범어사 ‘삼국유사’ 국보승격
‘삼화령 애기부처’ 보물지정
원당암 · 갑사 불상도 포함





국보로 승격되는 범어사 소장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권4~5(사진 왼쪽)와 보물로 지정되는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사진 오른쪽).

불교 성보문화재 국보 · 보물로 잇달아 승격 ·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고 6월 29일 밝혔다.

국보로 지정 예고되는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중 권4~5만 남아 있다.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 스님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경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국유사〉는 고려의 고승 일연 스님이 1281년(고려 충렬왕 7년) 편찬한 역사서로 고조선부터 삼국 시대의 역사 · 문화에 관한 설화 등을 종합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사 연구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처음 간행한 시기나 간행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확인 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은 1394년 경 판각된 조선 초기 판본이다.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완질(完帙)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후 인출 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 지정본에서 빠진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 · 학술적 중요성이 크다.

아울러 범어사 소장본은 서체, 규격, 행간(行間) 등에 있어 1512년 간행된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여 조선 시대부터 판본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됐다. 단군신화를 비롯해 향찰(鄕札, 신라식 음운 표기방식)로 쓴 향가(鄕歌) 14수가 수록돼 한국 고대 언어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삼화령 애기부처’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과 합천 해인사와 공주 갑사의 불상 · 복장물 · 복장전적들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신라 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 중 하나로 꼽히는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을 비롯해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복장전적’ 등 총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경주 남산 계곡 중 한 지류인 장창곡의 정상 부근 석실(石室)에 있던 불상으로, 관련 기록과 조각 양식 등으로 보아 신라 시대 7세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삼존상은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신앙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644년(선덕여왕 13년) 생의(生義) 스님이 경주 남산 골짜기에서 발견해 삼화령(三花嶺)에 봉안한 미륵상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충담사(忠談師)가 차를 공양했다고 하는 삼화령 미륵세존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귀엽고 천진난만한 용모가 가장 특징적인 인상으로 꼽혀 ‘삼화령 애기부처’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한국에서 가장 빠른 의좌형 미륵삼존불이자 신라인들의 신앙생활이 반영된 대표작”이라며 “7세기 신라 전성기의 수준 높은 조각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 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 · 사보살입상 복장전적’도 보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삼척 흥전리사지서 통일신라 ‘금동사자상’ 출토

불교문화재硏 발굴 조사서
사자진병향료 손잡이 사용
“韓병향료 연구 중요 자료”

(재)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삼척시(시장 김양호)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삼척 흥전리사지 발굴조사 중 통일신라시대 사자진병향로(獅子鎭柄香爐) 손잡이에 사용한 금동사자상이 확인됐다”고 6월 30일 밝혔다.

삼척 흥전리사지는 통일신라시대 영동지역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찰로 그간 금당지, 탑지 등 주요 가람시설이 확인됐다. 특히, 신라 시대에 왕이 임명하는 승단의 최고 통솔자인 ‘국통(國統)’이 새겨진 비조각(碑片)을 비롯하여 청동정병(靑銅淨甁), 금동번(金銅幡), 청동인장(靑銅印章)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어 위세 높은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토된 금동사자상은 사자얼굴 전면부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부식이 진행됐지만, 비교적 완전한 형태이다. 사자는 복련(覆蓮,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이 시문된 연화좌 위에 앞다리를 세우고 앉아 있다. 부식된 부분을 제외한 전체에는 도금이 남아 있다.

금동사자상은 불교에서 공양구로 사용되는 병향로 손잡이 끝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자진병향로’는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향로로, 현재 군위 인각사지 출토 사자진병향료를 비롯해 2점만 국내에 남아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자진병향로는 당과 통일신라, 일본 등 삼국에서 모두 사용한 향로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향로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사자진병향로에 사용된 사자상이 출토됨으로써 흥전리사지에서 사자진병향로를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금동사자상은 한국 병향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통일신라시대 동아시아 불교 전파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사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삼척 흥전리사지에서 출토된 금동사자상. 통일신라시대 대표적인 병향료인 사자진병향료의 손잡이 부분이다.



본승은 건강이 안좋아 그동안 일제치하로부터 맥이 끊긴 불교 전통 의술을 발굴, 연구를 해오면서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전 지구촌에서 오늘도 무수히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렇게 어려울 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인가?
우리 불교가 지금 말법에 이르러 더는 발전할수 없는 것은 시대에 따라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데 있었다고 생각하며 좁은 법당안에서 목탁만 치는 시대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잘못된 식생활로 앞으로 더 무서운 병이 창출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병들어 고통받는 불자들만이라도 건강을 지켜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죽비 요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죽비요법은 어려운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죽비요법이란?
통증 및 혈을 두드리어 근육과 혈을 풀어주는 요법이라 합니다. 어느날 은사께서 어깨가 아프다고 죽비로 두들겨 통증을 없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인체에 대한 지식과 혈에 관해 또는 불교 전통치료 처방문 등을 통하여 많은 치료법을 발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도인과 스님들이 침술등으로 치료를 하는줄 알고 있으나 의료법에 걸려서 마음놓고 치료를 할수가 없는 실정이며, 그로인해 묻혀가는 신비한 도술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여, 죽비요법을 발굴, 연구 개발한바, 침술보다 더큰 효력이 나타남을 경험을 통하여 알수가 있었고 하여 불가의 스님이나 일반 승도에게 전수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우리 불교가 거듭날 수 있음에 뜻을 두고 소개하고자 하며, 한마디로 신비의 요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물론 수료 자격증까지 받을수가 있고 의료법에 절대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천수천안 요법 ,무상심신법, 디딤법등 다각면에 요법을 경험하고 배울수가 있고 앞으로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여 세계적 불교 포교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수강생 모집 : 선착순 7명 ✻ 교육시간 1주일 , 수강료 500만원 ✻ 침식제공, 자격증 수료(1기생만 한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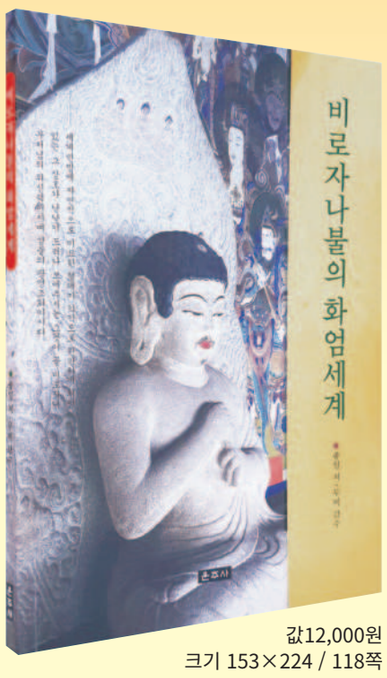
문의전화 033) 574-2387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영경로 595-131 태광사 석존합장

비로자나불의 화엄세계

汝心
我心
如心

너 마음을
내마음 같이
하는 거!!!

權宗一 和南



값12,000원
크기 153×224 / 118쪽

운주사

구입문의 : 031-510-9077 권종일 스님

“허왕후 가야불교 해양루트 발견”

가야문화진흥원, 6월 27일 가야문화 콘텐츠 학술대회

도명 스님, 지명 통한 경로 추정 〈삼국유사〉 추가연구 필요 주장 황순일 교수, 참파왕국 근거제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가야문화진흥원,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 한국인도학회가 공동 주최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학술대회’가 6월 27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됐다.

“〈삼국유사〉 속 지명에서는 가야불교의 유래를 찾을 수 있는 허황옥 왕후의 루트가 발견됐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과 동명대 인도문화연구소(소장 장재진), 한국인도학회(회장 이거룡)가 공동 주최한 ‘가야문화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 학술대회’가 6월 27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개최됐다. 5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는 매년 ‘허황옥 왕후의 도래 경로’를 재검토하고 가야문화에 대한 새로운 원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서 도명 스님은 ‘허황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 발표서 가야는 허황옥 왕후와의 만남과 입지적 조건이 만나 해양 강국이 될 수 있었다며 ‘허황옥 해양 루트설’에 대한 근거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나온 지명을 제시했다.

도명 스님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망산도’, ‘승점’, ‘주포’, ‘기출변’, ‘능현’, ‘황후사’ 등 지명 중 망산도는 현재 견마도이며 주포는 창원시 주포마을로 추청된다”며 “허황옥 도래 경로를 〈삼국유사〉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남방 해상무역루트는 가야불교의 형성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인도에서 동아시아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고대 해상무역 왕국인 참파(Champa) 왕국의 교역품을 보면 인도불교가 남방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한반도에 전래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왕국의 교역품을 보면 인도에서 동남아시아, 한반도 남단 가야까지 연결돼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 1부에서는 장재진 동명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거룡 선문대 교수의 ‘가야불교 연구의 주제와 방법 재검토(명월사 사왕석 부조의 인도 기원을 중심으로)’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참파(Champa)와 남방 해상 실크로드’ △강형철 동국대 연구교수의 ‘인도설화 수용양상(어산불영을 중심으로)이 발표됐다.

각각 최경아 동국대 강사, 부은암 지원 스님, 이재수 동국대 교수, 문무왕 동명대 초빙교수,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 남치우 동명대 초빙교수가 논평했다.

2부에서는 석길암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영 동국대 연구교수의 2015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가야 역사 교육의 쟁점과 과제 △여여정사 도명 스님의 ‘허황옥 신행길의 새로운 고찰’ △정진영 캘거리대 박사의 ‘구지가에 대한 신화원형 분석과 포스트모던적인 의미’가 발표됐다.

또한 박정석 목포대 교수와 법진 스님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 전임연구원, 정진원 동국대 박사와 통도사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이지은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이병진 동명대 강사가 논평에 참여했다.

한편,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통도사 승가대학장 인해 스님,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송산 스님, 정홍섭 동명대 총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미소원 청년회,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저소득 어르신 위한 원기 회복 키트 지원



미소원 청년회는 6월 27일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부산지역 불자 청년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을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보양식을 선물했다.

사단법인 미소원(이사장 장유정) 청년회는 6월 27일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원기 회복 키트 지원사업’에 회향됐다.

‘원기 회복 키트 지원 사업’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이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어르신 100세대에 삼계탕, 소고기죽, 전복죽, 갈비탕, 사골곰탕, 추어탕 등 즉석식품을 마련해 전달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나눔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자칫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원기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보양식 구입을 위해 미소원 청년회는 200만원을 전달했으며 전달식 후 청년회는 직접 세대를 방문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박미주 미소원 청년회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된다”며 “보양식 드시고 건강하게 한 해 보내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보양식을 받으며 “감사하다”며 “큰 기운을 선물 받은 것 같다. 모두 건강하자”고 밝은 얼굴로 화답했다.

미소원 청년회는 2017년 2월 미소원 법당에서 준비모임을 열고 매월 정기법회 및 활동을 이어오다 2017년 11월 11일 정식 출범했다. 현재 미혼 남녀 및 신혼부부 등 젊은 불자들을 중심으로 30 · 40대 청년 20여 명이 활동 중이다. 나눔 활동을 위해 미소원 청년회는 매년 일일 희망나눔 맛집을 열고 후원금 마련 행사를 열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원효사 창건주 원효 스님 다례재 봉행



무등산 원효사(주지 해청)는 6월 24일 경내 원효전에서 ‘원효성사 탄신 1403주기 다례재’를 봉행하고, 원효 스님의 공덕을 기렸다.

다례재는 삼귀의, 반야심경, 인사말에 이어 원효사의 창건주인 원효 스님에 대한 사부대중의 헌향, 헌다, 헌화가 이어졌다. 주지 해청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원효사는 화쟁사상에 의거한 수행도량이다. 앞으로 원효 스님의 사상과 수행가풍을 이어받아 더욱더 정진하는 사찰로 거듭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성불교사암聯, 장성군에 장학금 전달



전남 장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금강, 금강사 주지)는 6월 29일 장성군청을 방문해 지역 사찰에서 후원한 장학기금 2,000만원을 장성군(군수 유두석) 장성장학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회장 금강 스님을 비롯한 장성지역 회원사찰 스님들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총무국장 청마 스님 등 백양사 소임자 스님들, 유두석 군수 등이 참여했다. 기금을 마련한 금강 스님은 “지역의 인재양성과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불정사, 인재 양성 위한 무차 공양



한국불교태고종 천불정사(주지 고담)는 6월 29일 부산대학교 본관 5층 총장실에서 부산대 고시 준비반인 ‘신목정’과 ‘고담 기맥정’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3,750만 원을 약정했다.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은 “우리 사찰이 위치한 부산 금정구의 교육기관인 부산대를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는 것은 끝없는 자비의 실천”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불굴의 의지로 열심히 수학해 지역과 국가를 이끌어 갈 든든한 동력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정사 수진 스님, 동명대 발전 후원



부산 해인정사 수진 스님이 부산 동명대에 발전 기금을 후원하고 인재불사를 이어갔다. 해인정사 수진 스님은 7월 1일 동명대 총장실에서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수진 스님은 현재 동명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발전기금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잘 회향되길 기원했다.

수진 스님은 “좋은 환경에 보탬이 되고 학생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내소사, 목조사천왕상 조성불사 회향

혜산 대종사 15주기 추모재도 함께 열려



부안 내소사는 6월 26일 천왕문에서 목조사천왕상 점안식과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아름다운 전나무길과 꽃살무늬 창살로 유명한 부안 내소사가 3년 여에 걸친 목조사천왕상불사를 회향했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6월 26일 천왕문에서 목조사천왕상 점안식과 조성불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새로 조성된 내소사 목조사천왕상은 1983년 조성된 기존의 FRP사천왕상이 낡고 훼손돼 2017년 7월 조성불사를 시작으로 이번에 점안식 및 회향불사를 봉행하게 됐다.

목조사천왕상 점안식은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이 증명하고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의 집전 하에 진행됐다. 이어진 회향법회에는 주지 진성 스님과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한주 범여 스님, 선운사 총무국장 종소 스님, 선운사 기획국장 진용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3년여에 걸친 사천왕상 불사를 마친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1983년 중창주이신 우암당 혜산 대종사께서 주지로 부임한 후 폐사 직전의 내소사를 현재 대가람으로 변모시켰다”며 “우암당 혜산 대종사의 15주기 추모재일에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점안법요식과 회향법회를 봉행하게 돼 불보살님과 동참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의 기쁨이 바른 법을 펴고 중생의 안락으로 이어지길 당부하며 목조사천왕상 조성불사 회향으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치하했다.

회향식에 이어 대중보전에서는 우암당 혜산 대종사 제15주기 추모법회가 열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삼광사, 상월원각대조사전 상량

천대종 종정 도용 스님 법문으로 축원


삼광사는 6월 27일 경내 조사전 건립 현장에서 ‘대조사전 상량 법요식’을 개최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는 6월 27일 경내 조사전 건립 현장에서 ‘대조사전 상량 법요식’을 봉행했다.

삼광사는 신도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중흥 원력을 기리기 위해 대조사전 건립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천태종 본산 구인사에 이어 두 번째로 건립되는 대조사전은 지난해 9월 착공됐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전수자 김종양 대목장이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면적 280㎡, 높이 18m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날 상량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경과보고 △개회사 △상량문 낭독 △상량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법요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가르침을 따르는 신심 깊은 불자들이 지극한 정성 모아 법의 기둥 받쳐 들어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모여든다”고 법문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삼광사 대조사전은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을 더욱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이다. 대조사전이 낙성되면 천태도량의 새로운 성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삼광사 도량의 건립을 부촉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대조사전 불사를 통해 더욱 널리 전하고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원력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상량 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3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불교, 한국전쟁 70주년 수륙재

1000여 명 모여 코로나 극복 발원


태화문화진흥원은 6월 25일 울산 백양사 일대에서 ‘2020년 국태민안 수륙대재’를 거행했다.

울산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대재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태화문화진흥원(이사장 산옹)은 6월 25일 울산 백양사 일대에서 ‘울산 시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2020년 국태민안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수륙대재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태화문화진흥원 이사장 산옹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정토사 덕진 스님, 화림사 대원 스님, 법륜사 눌암 스님 외 송철호 울산시장, 이병호 울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조종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 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수륙대재는 △육법공양 △108헌다례 △내빈소개 △봉행사 △격려사 △추도사 △청법가 △법문 △발원문 △추모곡 △헌화 △수륙대재 봉송의식 순으로 마무리 됐다.

이사장 산옹 스님은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으로 숨진 민간인들을 위로 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륙대재를 봉행하게 되었다”며 “울산 시민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정성스러운 육법공양과 108명의 신도들이 올리는 헌화를 보며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이 감동 받아 극락왕생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수륙대재를 통해 울산 시민들의 행복과 치유가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종래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유족회 회장은 “백양사에서 처음으로 위패를 모시고 재를 지내니 감개무량하다”며 “영가를 기리는 추모탑이 11월에 착공예정이다. 그곳에 412명의 위패를 모실 계획이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현불 논단

'꼰대'라는 '타임캡슐'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시대 변화 · 흐름에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관대로 사는 사람들
요즘 '꼰대'라고 불리는 부류

자기 기준 맞춰 모든 것 판단
나이 · 경력 하위자 억압해

편견 등은 종교적 진리와 반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꼰대 타임캡슐'에 갇히지 말라

출가 전 언젠가 읽은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한 사람이 걷는 생활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는 걷는 것 외에 탈것을 이용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기차라는 신문명이 탄생시킨 기계를 보면서 자신은 결코 저것을 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기차를 이용하곤 했다. 기차의 신속함과 편안함을 맘껏 즐기며 살았다. 하지만 이 아들은 자동차를 보며 나는 저 것을 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의 아버지가 기차를 이용하지 않은 것처럼 그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의 손자는 아버지와 달리 기차는 물론 자동차도 즐겁게 이용했다. 기차보다 편리함이 많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비행기는 이용하지 않았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그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기차와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까지 자유롭게 이용하였다. 이 집안사람들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수준 이내에서만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였다.

처음 이 이야기를 읽으며 무슨 이렇게 단순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 생각되었다. 아무리 지어진 이야기라고해도 세상을 저렇게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싶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이 이야기를 거듭거듭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 세상에는 오히려 이 이야기보다 더 단순하고 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장과정 속에서 스스로 만든 그 자신의 인생관대로만 살아가는 타임캡슐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요즘 사회적 용어로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의 하나이다. "우리 때에는 말이야" 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니가 뭘 알아" 등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부 기성세대는 나이나 경험 또는 지위, 경력으로 자기보다 하위에 있거나 어린사람들을 억압하고 지적한다. 이들은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타임캡슐처럼 자신의 권한과 위력이 작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을 멈추고 외부와 단절한 채로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이들에 대해 방임, 학대를 자행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류다. 그리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들은 아이들이나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든 자신의 권한과 책임이지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 국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동물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이런 행위가 범죄임을 규정하고 있다. 식당이나 상점 또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갑질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다. 봉건시대의 지위인 '왕' 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손님은 왕' 이라는 말을 철석처럼 신봉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영역에 속하는 종교도 예외는 아니다. 종교를 배경으로 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면 그 병폐는 더욱 심하게 된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종교에서 이끌고자 하는 진리와 반대되는 성질의 것이다. 어떠한 명문과 근거를 가지고라도 고정관념과 편견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타임캡슐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김형중의
붓다설법학

중도로서 설법하라

중국 당나라 때 남전선사(748~834)의 '남전선사가 고양이의 목을 벤 뜻은 무엇일까(南泉斬猫)' 란 화두가 〈무문관〉 〈벽암록〉 〈종용록〉 〈선문염송〉 등에 나온다. 화두(공안)는 조사 스님이 제자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만든 고도로 상징적이고 함축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남전 스님이 동당과 서당의 스님들이 고양이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고, 고양이를 잡아들고 "여러분이 이치에 합당한 한 마디를 하면 이 고양이를 살려주고 못하면 목을 베어 죽이겠다"고 말했다. 대중이 아무 말을 못하자 남전은 마침내 고양이를 베었다.

마침 출타 중이던 제자 조주 스님이 저녁에 돌아오자 남전선사는 낮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들려주고 "너라면 어떻게 말하겠느냐" 하고 물었다. 조주 스님은 아무 말이 없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이고 나가 버렸다. 남전선사는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고양이를 살릴 수 있었으련만…"이라 하였다. 〈무문관〉

'남전선사가 고양이 목을 자른 화두' 는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아주 짧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조주 스님이 발에 신어야 할 짚신을 머리에 인 것은 스승이 고양이의 목을 벤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치에 어긋난 행위임을 지적한 것이다.

위의 화두는 〈무문관〉 제1칙 '개에게 불성이 있는가(趙州狗子)' 와 상통한 화두이다. 개와 고양이가 바뀌었을 뿐이다.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있을까? 없을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是甚麼)' 이렇게 참구하는 것이 간화선(看話禪)의 정통 선법이다.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나 구도자의 기본자세는 회의(懷疑) 즉, 의문(의심)이다. 조사어록에 나타난 조사 스님의 평론은 " '있다(有) 없다(無)' 의 양단에 얽매여 집착하는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칼로 단호하게 잘라주어 깨달음의 길인 중도(中道)를 제시한 것이다"고 하였다.

인간이 사는 현상세계는 나와 너, 큰 것과 작은 것, 선악과 미추가 서로 상대적이고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 승찬 조사는 '신심명' 에서 "애정과 증오하는 두 마음만 없애면 지극한 불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하였다.

법사는 진보와 보수, 지연과 학연 등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설법을 하면 안 된다. 편파적인 말을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청법대중은 싫어한다. 차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으로 중도 정법을 설해야 한다.

〈법화경〉 '법사품' 에서 법사의 마음자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법사는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설법하라. 여래의 방이란 중생을 사랑하는 자비심이요, 여래의 옷이란 부드럽게 잘 참는 인욕심이요, 여래의 자리란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인 반야공(般若空)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인 연기(緣起)가 공(空)이요 중도(中道)이다. 반야공은 차별이 없는 평등한 공의 세계를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지혜이다.

〈前 동대부여고 교장〉

社 說

승려복지제도 시행 10년에 부쳐

조계종 승려복지제도가 시행된지 꼭 10년이 됐다. 승려복지는 오랜 기간 조계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원과제로 꼽혀 왔다. 한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청정한 삶을 살아온 스님들이 나이가 들어 병고와 노환으로 고통 받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과 인력, 행정적인 한계로 인해 선뜻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2010년 무렵 승려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여 승가복지 TF팀이 구성됐다. 쉽지 않은 과정을 지나 승려복지제도가 완성됐고, 벌써 10년이 지났다. 처음 시행 당시 65세 이상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정했던 복지제도는 2015년 전면개정을 통해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들로 확대됐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가제도의 틀 속에서 보편적 승가복지를 구현할 토대를 구축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일궈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지역 가입 형태를 '특례가입사업장'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복지 일선인 교구본사간 편차를 줄이고 모범교구의 노하우를 공유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며, 스님과 불자들이 마음 편히 병고를 극복할 수 있는 전문요양병원도 필요하다. 다행히 승려복지회가 이를 염두에 두고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보공양 확대도 필수적이다. 승려복지를 위해서는 출재가를 떠난 사부대중 공동체가 적극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승려복지제도를 종단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것은 곧 종단 소속 모든 스님들의 복지증진과 스님들이 수행정진, 전법교화, 종단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다. 사부대중의 관심 속에 무궁한 발전을 발원한다.

불교성전 활용 계획 세워야

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성전 발간이 눈 앞에 다가왔다. 최종 감수를 앞두고 종단 차원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7월 1일 전통공연장에서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서는 1인 1책 수지독송운동, 각종 법회에서의 불교성전 봉독, 불교대학에서의 교육과정 포함과 불교성전 해설사 양성, 불교성전 사경대회와 같은 다양한 대회 개최 등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연령별 상황별에 맞는 2차 가공 콘텐츠 제작도 의견이 나왔다. 일목요연한 목차 정리와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가공, 위키디피아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각주를 달 수 있는 인터넷 불교성전 등의 제안이 그 것이다.

그동안 종단은 불교성전 편찬에 매달려 왔다. 불교성전 편찬은 포교원이 주관부서로 진행하고 있지만 총무원장이 편찬위원장을 맡는 등 종단사업으로 진행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과 활용 또한 종단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불교성전 편찬불사는 한국불교 신행과 포교를 위한 대작불사다.

어렵게 만든 불교성전이 제대로 읽혀지기 위해서는 종단의 제도권과 비제도권, 출가자와 재가자, 남녀노소를 넘어 모든 불자들이 함께 수지독송하는 분위기와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 수지독송도 종이책 뿐만 아니라 E북과 웹콘텐츠 등 방식을 다양화 해야한다.

21세기 우리시대 언어로 새로운 불교성전 탄생이 목전에 있다. 조계종 불교성전은 불자들의 신행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매개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상담(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국내최초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 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6/31~7/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원빈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원빈스님	이층버스	6	인물로 보는 한국 선 사상사 : 한권으로 읽는 한국선의 역사	정운스님	운주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서)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7	읽기만 해도 보리심이 샘솟는 원빈스님의 천수경	원빈스님	이층버스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8	법정스님이 세상에 남긴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	법정스님/김계윤 그림	불교신문사
4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9	우주의 중심 : 카일라스	김규현/이상원	마음여행
5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청우당	10	역주 유마힐소설경	김호귀	중도기획

책세상

박물관 안서 박물관 밖을 본다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

김정학 지음 / 곰곰나루 펴냄 / 2만원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지난 일들을 모아 놓은 곳, 박물관. 그런 과거를 증명하는 공간인 '박물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과거'뿐일까. 책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에서 박물관이라는 공간의 의미는 새로워진다.

"박물관이 지나간 과거를 모두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과 작은 전시장 속에서 길지 않은 시간을 거니는 동안, '과거 없이는 우리는 미래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그들의 울림에 나는 무릎을 쳤다."

책은 현재 대구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을 비롯해 한국 · 일본 · 미국 · 캐나다 · 호주의 박물관 36곳에서 느낀 것들을 모은 것으로, 현직 박물관장의 '박물관 바라보기'이다. 작은 디자인은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 형식의 박물관 답사기이지만 큰 디자인은 김정학의 박물관 스토리텔링이다. 곳곳의 박물관에서 '무릎을 쳤던' 순간들을 적고 있다. 또한 김 관장은 그렇게 세계 각지의 박물관 현장에서 무릎을 치며 얻은 생각들로 우리 박물관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한다. 그 모색의 텍스트이기도 한 책은 단지 박물관을 생각하는 텍스트를 넘어선다. 박물관 안에서 박물관 밖을 본다. 곳곳의 박물관이 소장한 '과거'들과 나란히 걸으며 박물관 밖으로 나온다. 다양한 과거의 인물과 역사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낸 깊이와 의미들을 꼼꼼하게 읽어준다.

책은 세계의 박물관이 '눈으로 보는(Eye On) 박물관'에서 '체험하는(Hands On) 박물관'으로, '이해하는(Minds On) 박물관'에서 '느끼는(Feels On) 박물관'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그 중에서 '마인즈 온' 박물관이 대세라는 사실을 일러준다. 그리고 이를 국내 박물관의 현장과 연계해 비교하면서 현실적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박물관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배우고 즐기는 제3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세계 36곳 박물관을 18개 주제로 나누고 두 개의 박물관을 서로 비교해 가며 관람할 수 있게 한 집필 방법도 신선하다. 사진가 김선국이 동행하며 촬영한 사진도 현장 분위기를 실감나게 한다.

책이 소개하고 있는 36곳의 박물관 중에는 지역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진천 종박물관 · 루쉰博 등
세계 36곳 박물관 스토리
다양한 인물과 역사 소개
"박물관 개념 · 역할 변화"

도 있고, 전쟁이나 학살, 갈등, 교육, 종교, 민속 또는 삶과 죽음 등의 다양한 주제를 각각 대표하는 박물관도 있다. 오프라인 박물관은 물론이고 온라인 박물관이나 방문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욱 교감을 많이 하는 박물관,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이동하는 이색 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박물관을 소개한다.

18개의 각 주제마다에는 뿌리깊은나무 박물관과 수오당의 관계, 정약용과 지석영이 쓴 어학교재, 청도 운문사의 새벽종송 소리, 추사 글씨의 다양한 흔적 등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씩 소개하고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김 관장은 박물관을 열심히 보러 다니다 교육박물관에 생각의 높이를 맞추게 됐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교육을 위한 박물관이라면 뭔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교육'이냐 '학습'이냐를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다르게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닿았다.



고판화박물관 소장 티벳 목판화 나한도 인출본.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체험학습도 '핸즈 온(Hands On)'을 넘어 '마인즈 온(Minds On)'으로 향하는 시대다. 고고학(考古學)보다는 고현학(考現學)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대다. 말하자면 박물관에 대한 개념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분야사 연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통섭하며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현장도 마땅히 그곳의 박물관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역사를 통해 존재감을 깨닫고 책임감을 드러내며 정의감을 키우는 공간 또한 박물관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 책으로 소개하는 36곳 박물관들은 만든 이의 의지와 지키는 이의 생각과 찾는 이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릎을 쳤던 곳이라 꼭 한번 방문을 권한다. '온고지신', '법고창신', '구본신참'이란 막연한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신(新)'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김 관장은 박물관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의 박물관들에게도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며,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눈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학 관장은 1959년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20년 동안 한국과 미국 등에서 방송사 프로듀서로 일했고,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총감독, 국악방송 한류정보센터장,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관장 등을 지냈다. 현재 대구교육박물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새로운 우리 역사와 문명



인류 창세 세계 최고 밝해문명사

고준환 지음 / 동쪽나라 펴냄 / 1만8천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류 창세 세계 최고 밝해문명사〉가 출간됐다. 책은 한민족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가 인류사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새로운 역사의 구성과 분석으로 밝히고자 한다.

책의 핵심은 "우리나라 역사는 주변 강국의 역사조작과 사대식민사학자들의 역사 왜곡으로 찬란한 '민족국가 반만년 대륙의 영광사'가 '2천년 반도의 굴종사'로 잘못 기록되고, 지금도 식민강단사학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잘못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성과 함께 우리 민족(한겨레 배달겨레 하느님족, 동이족, 광명족, 태양족, 백두산족, 한민족, 조선족, 고려인, Korean, 천신족, 밝해족, 백의민족, 아리랑족, 밝달족)이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황하문명, 인더스문명, 나일강문명, 메소포타미아문명 등에 앞선 인류세계 창세 최고 문명으로서, 이 4대 문명과 고대 마야, 잉카문명, 고대 그리스 로마문명 등에 영향을 준 '밝해문명(太陽光明文明)'을 창출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책은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장과 제5장에서 '밝해문명'의 개념과 역사를 소개하고 제6장에서는 밝해문명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밝(붉)해문명'은 '밝은 해'인 푸른 하늘의 빛나는 태양(靑天白日,밝해)을 생명양육생멸의 근원으로 삼는 문명이다."

우리 민족의 세계사상 시원적이고 최고(最古)이며, 최고(最高)의 문명을 '붉해문명' 즉 '밝해문명'이라고 명명하여 정의하고 있는 책은 우주와 나에 관한 '참나의 깨달음'을 전제로 인류창세 최고문명으로서 밝해문명을 신인 나반과 아만의 백두산 강림을 비롯하여 발해연안문명, 파미르고원 마고산성에서 시작된 마고선녀의 재창세와 그 시원역사를 먼저 소개하고 이어 청천백일의 붉(알)사상에서 비롯된 밝은 해(태양)인 밝해문명을 시작한 우리 상고사는 시원역사를 이어 환국, 밝달국, 민족국가, 단군조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밝해문명국 후사로 이어졌다고 적고 있다. 왕검단군은 실존의 우리 국조이고 단군조선이 실사이며, 〈환단고기〉 등 고기의 기록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4대 · 고대 문명 앞선
'밝해문명' 우리민족이 창출
"왕검단군 실존의 우리국조"

"서기 2000년 7월 3일 중국 천진일보에 의하면, 러시아 고고학 박굴단이 티벳 서쪽 환국 중심지 하나였던 수미산(수메르산)이라고도 하는 해발 6,714m의 히말라야의 아버지 카일라스산 주변지역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피라미드를 비롯한 100여개의 세계 최대 피라미드군을 발견했다고 한다. 〈중략〉 피라미드의 원조는 고대 환국인 환단조선시대 창세문화다."

우리가 만들고 이끌어온 밝해문명은 세계 각지로 전파되고 여러 형태의 위대한 문명으로 다시 이어지는데, 각지에서 발굴되는 유물과 유적들에서 그 흔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우리는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문명의 주인공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완 기자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진리의 말씀!

법구경



국문학자의 손길이 닿은, 적절한 현대어 선택과
운율을 고려한 번역! 늘 옆에 두고 경구처럼 읽고 되뇌면서
삶과 수행의 지남으로 삼을 가르침!

이종기 옮김/양장/360쪽/값 18,000원

명나라 4대 고승 감산대사의 주석!

수능엄경통의 1·2



불교의 철리와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수행자들의
필수 지침서! '일심삼관一心三觀의 종지'로 원융회통한,
"교법의 준칙이요 선종의 정안正眼!"

감산 덕청 지음/장순용 역주/양장/1권 27,000원/2권 25,000원

한국에 처음 소개되는 제5대 뻰첸라마의 가르침!

보리도차제의

마르티 일체지로 나아가는 지름길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실천 수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이자 안내서!

뻰첸라마 롭상예쎄 지음/법장 옮김/양장/496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일본 사찰에서 성소수자 결혼식을?

이색결혼식 봉행한 사이묘지
"편견 · 차별 극복 위한 방안"
'소수자'도 평등한 사회일원
스님들 퀴어퍼레이드 참여도

박영빈 객원기자



성소수자를 위한 결혼식을 봉행하는 묘칸스님,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가사를 수했다.
사진출처=포브스재팬

일본의 한 사찰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불교결혼식을 봉행하기로 해 화제다. 지난 6월 24일, 일본의 '포브스 재팬'은 성소수자들과 함께하기로 한 사찰 '사이묘지(最明寺)'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사이타마현 카와고에(川越)시에 소재한 사이묘지(最明寺)는 13세기에 건립된 천태종의 고찰이다. 사찰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회를 열고 있는 사이묘지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중들에게 불교와 사찰의 문호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요리법으로 조리한 사찰음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사이묘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 식료품을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1일 나눔행사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사이묘지는 "차별 없는 평등함,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6월부터 성소수자를 위한 결혼식을 해당 사찰에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묘지의 부주지 치다 묘칸 스님은 "인도에서 1년간 수행했던 경험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체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스님은 "인도에서 머물렀던 사찰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가진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 더해 불교 승려인 나는 인도에서 '소수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럼에도 모두가 존중하며 화합을 이루는 모습에 큰 문화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묘칸 스님은 이러한 다양성의 화합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꼽았다. 인도에서 귀국한 후 종파를 막론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행사가 열리면 빠짐없이 참석했다. 더불어 사이묘지가 소재한 카와고에시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도시'를 모토로 한 행사와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카와고에시에서 열린 첫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스님은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하기 전엔 소수자들이 배타적이라는 편견이 조금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차별없이 서로 존중하며 교류했다"며 회상했다. 스님은 이 퍼레이드에 참여한 것이 이번 결혼식 봉행의 첫 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카와고에시에서 동성부부를 인정하는 '파트너쉽 선서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즈음하여 퀴어퍼레이드에서 인연이 된 한 참가자로부터 "사이묘지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템플스테이나 좌선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스님은 전통사찰로서 성적소수자들에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성적소수자들의 불교결혼식을 생각해냈다. 불교결혼식에선 결혼반지대신 결혼염주를 사용한다.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무지개색 염주도 개발했디.

묘칸 스님은 "동성결혼이라는 말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사찰에서 결혼식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먼저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동성커플뿐만 아니라 이성커플간의 결혼식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불교는 원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포용의 종교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이나 최근 불전 결혼식이 줄어들고 있다. 사이묘지가 추억의 장소로서 누구나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며 사이묘지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순례자는 받지 않습니다"

부다가야호텔협회 등 결정
中 · 印 국경분쟁 여파 확산



부다가야를 순례하는 순례자들.
사진출처=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6월 15일 시작된 인도군과 중국군 간의 국경분쟁이 성지순례자들에게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다. 6월 28일 인도의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 '자그란 닷컴' 등의 현지 언론들은 불교성지가 밀집한 비하르(Bihar)주에서 중국인 순례자들에 대한 거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하여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지, 부다가야에서 더 이상 중국인 순례자들이 숙박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현지 호텔협회와 요식업협회가 내린 결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는 신분과 나이, 성별 등을 불문하고 객실을 제공하지 않으며, 식당의 출입을 거부하게 됐다.

부다가야 호텔협회의 사무총장 수다마 쿠마르는 "이번 결정은 중국군이 인도군을 공격하여 도발한 것에 대한 의분에서 비롯됐다. 인도 국민으로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현재 부다가야 호텔협회는 전인도상인협회와 함께 협력하여, 중국인 투숙객 거부와 함께 호텔비품에 대한 중국상품 불매운동까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대륙국적자들에 한하며, 대만, 싱가폴 등의 중화권 국가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그란 닷컴'은 이번 결정에 대해 "코로나 19와 함께 국경분쟁으로 반중정서가 이미 극에 달해있다. 초기에는 일부 식당과 숙박업소에서 사적인 거부 및 불매운동이 있었으나, 협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분쟁이 해결될 때 까지 중국인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이라고 세부상황을 밝혔다. 현재 비하르 주에서는 부다가야를 시작으로 다른 불교성지들이 소재한 도시와 마을에서 중국불매운동과 중국인 거부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부다가야에는 중국정부가 건립한 중국불교사찰을 비롯, 대만과 싱가폴 불자들이 세운 사찰들도 산재해 있으며, 상주하는 출가자들도 일부 거주하고 있다. 한 현지 여행업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이 연간 10~15만 명이 가량 순례를 위해 부다가야와 비하르를 방문한다. 비하르 주의 가장 큰 수입이 관광수입인 것을 보았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인원"이라며 이번 조치가 보여 주기용 일회성 조치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불교도들을 중심으로 "비폭력과 평등,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가 탄생한 성지에서 차별이라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어 추후 전망이 주목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지옥 보여주는 이색사찰들 '화제'

태국 왓 수탓 사원 대표적
사후 과보 드러내는 방안





태국 중부 촌부리의 센숙사원에 설치된 지옥 망자의 모습(좌), 왓 삼파시우 사원의 도라에몽이 그려진 지옥도 모습(우).
사진출처=아사히신문

미소의 나라라고 불리는 태국에서 지옥의 고통을 생생히 보여주는 이색사찰들이 화제다. 지난 6월 27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섬뜩한 그림과 조각상으로 지옥을 표현한 태국 이색 사원을 보도했다.

이색적인 특징을 자랑하는 사찰이 많기로 유명한 태국. 이중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한 사찰은 최소 8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콕에 소재한 왓 수탓 사원도 지옥의 풍경을 생생히 보여 주는 것으로 인기가 높은 사찰 중 한 곳이다.

사원 중앙에 모셔진 황금빛 불상 뒤에 서있는 기둥에는 17명의 망자들이 가마솥에 삶아지거나 혀를 뽑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일상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사후에 이 망자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다. 심지어 가마솥을 끓이는 장작은 벌을 받는 망자들의 사지로 묘사되어 더욱 섬뜩하다.

이 외에 살생을 범한 망자가 가는 지옥, 사음을 범한 이가 가는 지옥 등에 대한 묘사도 등장한다. 살생의 죄는 생전에 자신이 죽인 생명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음을 범한 남녀는 알몸으로 가시나무를 오르는 벌을 받는다.

이러한 지옥의 모습들은 사찰을 참배하는 대중들에게 살아 있는 동안 행한 대로 사후세계에서 그 과보를 받는 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태국 중부 수판부리에 위치한 왓 삼파시우 사원은 성인들이 보기에도 섬뜩한 지옥의 풍경을 해학적으로 승화했다. 사찰을 찾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의 만화 캐릭터인 '도라에몽'을 지옥도에 등장시켰다. 그러나 도라에몽은 지옥에서 끓고 있는 솥 안에서 내세에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망자중 하나로 등장한다. 비록 징벌을 받고 있지만 도라에몽의 등장은 태국 국내외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불교기념일간 주류 판매금지

7월 4 · 5일 초전법륜일 기념

태국 최대 불교 기념일동안 태국 전국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 6월 29일 태국의 '더 푸켓 뉴스' '타이레지덴탈' 등의 현지 언론들은 태국 전국에 내려진 금주령을 보도했다.

7월 4일과 7월 6일은 태국에서 초전법륜일(Asarnha Bucha)과 하안거 결재일로 태국 최대의 불교 기념일이다. 해당일 전후를 포함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다. 이번 금주령은 7월 4일 토요일 오전 12시 01분부터 시작해 이튿날 자정에 해제된다.

푸켓 주 경찰 사령관 탁쿠라푼냐시리는 "연휴중 초전법륜일과 하안거 결재일에 주류 판매 금지가 적용된다. 그러나 공항 면세점은 판매가 가능하다. 이외의 공휴일에는 주류 판매가 가능하지만, 금주령 기간 중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 혹은 10만 바트(한화 약 4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연휴 동안 태국의 관공서 대부분은 4일간 문을 닫으며, 주요 은행 지점 등 금융 시설도 일부 폐쇄된다.

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초전법륜일을 기념해 불자들이 가까운 사찰을 참배하고, 저녁에는 촛불을 들고 행진하는 풍습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집회는 없을 예정이다. 태국 국립 불교 사무국장 사로즈 칸시리아신은 "사찰 방문자와 행사 참여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야하고 대규모 집회는 지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상과 탑도 '유행'탑니다



이상근의
聖寶流轉

⑬ 명주 공양상과 안동 전탑





지역풍을 보여주는 불교 성보들. 사진 왼쪽은 강릉 신복사지 3층 석탑과 공양상으로, 평창 월정사 공양상보다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오른쪽은 안동 신세동 7층 전탑이며, 안동 지역에는 통일신라 후기에 조성된 전탑들이 산재해 있다.

지역풍과 유행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라는 유물을 볼 수 있다. 경주에 남산신성을 세울 때 세운 비다. 남산신성은 〈삼국유사〉에도 그 기록이 보이는데 "별본(別本)에 말하기를 건복(建福) 8년 신해년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50보(步)였다"고 쓰여 있다.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건복(建福) 8년 신해년'은 진평왕 13년, 서기로는 591년이다. 이 비는 한 기가 아니다. 비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6보에서 20보 사이에 하나씩 세워졌다. 1보를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1.4m 내외이니 10m에서 20m 사이의 거리에 하나씩 세운 셈이다. 1934년 처음 발견된 이래 1994년까지 9기 그리고 2000년 들어 다시 한 기가 더 발견되어 지금까지 모두 10기가 남아 있다. 돌에는 빼곡히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내용은 다르지만 형식은 모두 동일하다. 맹세의 글, 참여한 인물, 각 집단이 쌓은 거리 등이 기록돼 있다.

그런데 비문 내용이 흥미롭다. 각 구간마다 공사 책임자와 공사에 종사한 사람들의 출신 지역을 명시해 놨다는 것과 '만일 3년 내에 성이 무너지면 벌을 받는다'는 서약이 있다. 요즘 짓는 아파트의 하자보수 기간이 2~5년 사이인 것처럼 성에도 하자보수와 책임을 물었던 것 같아 재미있다. 비가 6보에서 20보로 불규칙하게 섰던 것도 아마 공사의 난이도와 참여 그룹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바로 출신 지역이다. 함안, 의령, 의성, 상주, 옥천, 선상, 영풍 등 당시 신라가 관할하고 있던 주요 지역의 장인들이 모두 모였다. 비문의 내용을 보면 총괄은 중앙에서 했지만 각 구간의 책임자는 지방관의 명령을 받아 노동력을 동원하고 공사를 책임졌던 '지방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고구려나 백제도 중앙에서 토목 사업을 전개할 때는 이런 형식을 사용했을 것이다.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는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서는 이런 토목공사 진행을 아예 군사조직처럼 운용했다. 법당(法幢)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명에 의해 전국 촌락을 대상으로 인력이 동원되는 노동부대였다.

역으로 생각하면 각 지역 또는 지역 세력도 독자적인 기술자 그룹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 이 '독자적인 기술자 그룹'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세기가 넘어가면서 지방 호족세력이 신라 왕권을 무시하고 주민에 대해 독자적으로 세금을 거두기도 하고 급기야 새 왕국을 세우는 단계로까지 나간다. 이런 지방 기술자들은 호족과 그 명운을 같이 하는데, 고려시대 전반기까지 그 세력을 떨친다.

이런 과정에서 생겨난 불교문화재의 특성이 하나 있으니 바로 특정한 지방에서만 유력하게 나타나는 불상이나 탑 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여럿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북쪽 명주의 공양상과 남쪽 안동의 전탑이다.

특정 지역 독특한 불상 · 탑들
통일신라 요충지 명주 '공양상'
월정사 공양상과 지역색 보여

안동 지역에는 전탑들 산재해
통일신라 후기 조성으로 추정

강릉서 유행한 약왕보살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석탑과 강릉 신복사지 삼층석탑 앞에는 특이한 불상이 하나씩 있다. 왼쪽 다리는 세우고 오른쪽 다리는 끓은 우슬착지(右膝着地)를 하고 양손을 모아 향을 들고 있는 공양상이다. 원통형의 높은 관도 썼다.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은 12세기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복사지석탑은 정확한 건립 시기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월정사 팔각구층석탑보다는 조금 앞선 시기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강릉은 서기 전후부터 동예, 하슬라 등의 명칭으로 독자적인 성읍국가 또는 읍락국가가 형성되어 있던 지역이다. 비록 태백산맥 줄기로 서쪽 편과 단절된 지역이지만 삼국 시대에는 고구려와 신라 양측 모두 요충지로 생각했던 곳이다.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9주로 개편했는데 현재의 강릉은 명주에 포함되었다. 명주는 당시는 위로는 통일신라 영토 최북단에서부터 아래로는 경주 가까운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왕위 계승전에서 패배한 김주원이 명주로 와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대장노릇을 하던 곳이다. 후삼국 시대에는 궁예의 든든한 뒷배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곳이니 자연스레 그들만이 공유하는 문화와 종교적 지향이 있었을 터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공양상이다. 공양상이라는 명칭은 사실 정확하지 않다. '일체중생희견보살(一切衆生喜見菩薩)' 혹은 '약왕보살'이라는 명칭이 있다. 〈법화경〉에 따르면 약왕보살은 〈법화경〉을 듣고 고행하여 정진해 깨달음을 얻었다. 약왕보살은 깨닫게 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1200년 동안 최고의 향을 자신의 온몸에 바르고 먹이는 정성을 들인 후 마지막에는 소신공양을 올렸다. 소신공양 후에 다시 몸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이가 바로 일체중생희견보살이다. 희견보살은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하여 탑을 세우고 장엄하는 소임을 맡아 이를 수행하면서 탑 앞에서 또 다시 자신의 두 팔을 태우며 7만 2000세 동안 사리탑을 공양하였다. 탑 앞에서 공양하는 모습은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물론 이 보살상은 '명주' 지역에만 있지 않다. 논산에도 고려 시대 만들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공양상이 하나 있다. 하지만, 현재 강릉지역에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살상이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논산의 공양상도 어디에서 옮겨왔는지 모른다. 명주지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 가지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고려 시대 문인 정추의 시에는 월정사 석탑 앞의 공양상을 '문수보살'이라고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다. 오대산 일대의 문수신앙과 잇닿아 있다. 정추의 '오해'였을 수도 있고 또 세운 사람들이 그리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문수보살인 줄 알고 계속 세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동서 유행한 전탑

또 하나 '지역 특성'이 다분히 반영된 유물들이 있다. 바로 안동 지역의 전탑이다. 현재 안동지역에 산재한 전탑은 대부분 통일신라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예가 극히 드물다. 이를 놓고 학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오간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한다.

첫 번째가 화엄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다. 의상 스님을 필두로 중국 유학파들이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이 땅에도 화엄종이 만개한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 유학을 하던 당시 중국에서는 전탑이 유행이었고 이에 따라 전탑 양식이 흘러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화엄종'을 표방했던 다른 지역의 사찰들은 왜 전탑 양식을 따르지 않았는지가 해명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안동지역 지질의 특성상 화강암에는 균열이 많아 낙동강을 낀 퇴적암 지대에 있는 양질의 점토와 강모래를 이용해 벽돌을 만들었다는 설이다. 주로 '건축'을 전공한 학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역으로 안동지역의 점토와 강모래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증거는 없으며 벽돌을 구웠던 가마터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풍수비보설의 영향을 세웠다는 설이다. 답사를 해 보면 전탑이 선 지역 대부분은 강을 끼고 있다. 사실이다. 그런데 비보를 꼭 '벽돌'로 해야만 했던 이유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여하튼 앞의 어떤 주장들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없다. '출발'이 어떠하였든 '유행'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풍' 밖에 없다.

돌(화강암)을 깎고 다듬는 것도 엄청난 공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돌을 만들어 높이 쌓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기술이 아니다. '특별한 기술자'들이 필요했을 터이고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반복해 제작해냈을 것이다. 여기에 이의를 달기는 어려워 보인다.

명주의 공양상이나 안동의 전탑 외에도 '지역풍'이 가미된 불상이나 탑은 더 있다. '지역'을 논하기에는 사실 탑이나 조각보다도 불화가 더 어울리기도 한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지역별로 활약하던 '화승'이 있어 이것만 별도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다.

물론 전국이 일일생활권이 된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보는 건 불가능하다. 최근 만들었지만 아주 특이한 불상이 있어 눈여겨 봐둔 적이 있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 다른 곳에서 또 찾았던 적이 있다. 그러다가 우연히 불상을 만드는 석재소에 갔다가 쓴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있다. '대량 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이정도면 다행이다. 요즘은 '지역풍' 대신 불상이나 탑도 '중국풍'이 한창 드세다. 무턱대고 탓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뒷맛이 쓰다.

〈불광출판사 편집주간〉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풍요와 복덕을 얻게하는 귀한 선물

천수경(千手經) 액자

인쇄물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모필로 써서 만든 것입니다.
붉은 비단에 금색원형으로 천수경을 적어 조형미와 더불어 품격까지 느껴져
주지스님 방이나 거실, 사무실 벽에 걸어놓기에 안성맞춤입니다.



· 작품크기 : 가로 45cm × 세로 45cm
· 바닥재질 : 비단(한지로 배접)
· 구입대상 : 스님, 신도님

천수경이란

천수경(千手經)은 관세음보살의 6번화신 중 하나인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을 신앙하는 경전이다. 천수다라니는 특히 티벳과, 네팔, 인도,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걸쳐 여러가지 이본(異本)들이 있는데 그 체제와 내용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다라니의 내용도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송되고 있는 천수경은 가범달마(伽梵達摩)역의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경)을 모태로 한 것인데 우리말로 풀어쓰면 한량없는 손과 눈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의 넓고 크고 걸림없는 대자비심을 간직한 큰 다라니경인데 천수다라니를 정성드려 모시거나 수지 독송하고 지키면 시방세계의 모든 불보살이 와서 증명하여 일체업장이 소멸되고 일체 악업과 중죄와 모든 장애를 여의케하며 일체의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모든 병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일체의 귀신이 범접치 못하게 하고 모든일을 성취케하며 구하는 바를 만족케하고 특히 흉몽을 길몽으로 바꾸며 수명이 장수하고 풍요와 복덕을 얻게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천수다라니에는 온갖 공덕이 들어있어 그 대비신력과 위신력의 영험은 한없이 높고 그 신묘함은 불가사의하다고 하여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한다.

문의 055-291-7263, 010-3845-2446 (금액협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번길 37-15호 도덕정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개강일시** : 2020년 **7**월 **14**일(화)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팔정도의 삶, '맑고 향기롭게'



변택주의
다시 읽는 法頂 스님
⑬ 법정 스님의 살림살이



법정 스님 다비식 운구 행렬 모습. 꽃상여 등 장식을 제하고 수수한 모습으로 마지막 가는 길을 당부하셨다.

"고고하고 향기롭게 살다간 법정 스님은 연꽃보다는 난초에 견줘야 하지 않겠느냐."

2012년 도법 스님이 법정 스님과 인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한 말씀으로, 존경하더라도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말씀이다.

"이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남긴 무소유 환상에서 벗어나야 해요. 한국불교는 대승불교다. 대승불교 세계관과 정신에서 나온 불교인 상이 보살인데, 보살 상징이 연꽃입니다. 연꽃은 피고름이 뒤범벅된 진흙탕에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피워내면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외려 둘레를 맑힙니다. 그러나 고고하고 향기롭게 살다간 법정 스님은 연꽃보다는 난초에 견줘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한 달 미뤄 윤사월초파일에 치렀다. 창원에 있는 37번째 꼬마평화도서관(청보리책방)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법정 스님이 나눈 평화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다녀왔다. 온 사람들은 천주교와 개신교 그리고 무신론자들이었다. 이야기를 열면서 법정 스님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고 물었다. 맨 앞에서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든 분이 "19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한 어른"이라고 말한다. 뭉클했다.

이처럼 스승은 숨어 사는 수행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맞닥뜨린 문제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풀려고 힘쓰다 가신 어른이다.

"즉시현금갱무시절(卽時現今更無時節) 지금이 바로 그때이지 다른 때가 있지 않다."

스승이 좋아하셔서 벽에 걸어놓고 음미하셨다는 이 말씀처럼, 스승은 그때그때 부딪치는 문제를 미뤄두지 않고 바로바로 풀어냈다.

스승이 해인사 선원에 있을 때, 장경각에서 나오는 아주머니 한 분이 대장경판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빨래판 같은 걸 가리키느냐고 묻는다. 이 소리에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알아볼 수 없다면 빨래판만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고는, 바로 불교사전을 비롯한 우리말 〈불교성전〉과 〈숫타니파타〉와 같은 경전을 우리말로 풀어냈다. 그러는 한편 샘터를 비롯한 매체에 결 고운 우리말이 살아나는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부처님 뜻을 여느 사람들이 쓰는 말로 널리 알렸다. 덕분에 나와 같은 이도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나서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그만두고 난 뒤에도 꾸준히 사회와 생태를 아우르며 살아야 한다며 거듭 흔들었다.

2006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한창 뜨거웠을 때는 "요즘 '한미 FTA'로 농업이 위기에 놓여 있다. 농업은 단순한 산업 하나가 아니다. 농업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상생 관계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상생과는 거리가 먼 미국 기업농을 위한 FTA 체결은 한국 농업은 없다고 치고 시작하는 사회전환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국토 가운데 산지가 64%, 농지가 20%로 농업이 죽어버리면 이 생태계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만다"며 나섰다.

"내 이웃이 갖지 못하고 있는데 나만 많이 갖는다는 것은 사람 도리가 아니다. 아무리 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뿌리를 좇아가보면 다른 누군가가 가져야 할 것을 도중에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유엔식량기구에서는 날마다 지구촌에서 하루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너무 많이 버리고 있다.(2007)"

"기상학자들은 금세기 안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섭씨 5도에서 8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히말라야를 비롯한 빙하들이 앞으로 40년 안에 모두 사라진단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 태풍이나 홍수로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매몰된다. 히말라야 빙하가 사라지면 갠지스강이나 메콩강, 양자강과 같은 큰 강에 물이 모자라게 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식량 위기가 온다. 모든 것이 오차가 한 치도 없이 서로 상관관계로 이어져 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후손들까지도 살아있으려면, 생활방식을 바꿔야 한다(2007)."

> **작은 몸짓 큰 살림 구성**
> **행보리심으로 사랑 전달**
> **코로나 어려움 극복하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라는 커다란 행성을 타고 해를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비행하고 있다. 이 기체에는 60억이 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고 있는 기체를 생각 없이 망가뜨려서 이 별이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다. 어떤 학자는 이 세계는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길을 걷잡을 수 없이 달리고 있는 기차와 같다면서 '사람들은 안전하게 뛰어내릴 방법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며 그 기차에 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는 개개인 의지가 전혀 작용할 수 없다. 블랙홀에 다 같이 휘말린 채 소용돌이 속에서 회전하고 있을 뿐이다(2002)."

"가장 큰 병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데 있다. 여기서 미움이 싹트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차별한 환경파괴가 일어난다.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원망이 생겨나고, 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욕망의 좌절이 찾아온다. 내 기준이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원인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부처님이 그토록 강조한 '무아'란 바로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2002)."

"불교 수행은 행보리심이고 보살행이다. 신해행증, 믿고 이해하고 행하면 그 결과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깨닫고 나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의 완성이 곧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행 속에 이미 깨달음이 들어 있다. 마치 과일 속에 씨앗이 들어 있듯이.

부처님 일생을 여덟 가지로 나누어 놓은 그림이 있다. 팔상도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성도상이 없다. 곧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없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성도상이 왜 빠졌을까 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수행과 항마 속에 이미 깨달음이 들어 있어서 따로 성도상을 넣을 까닭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 성불이기 때문이다(2005)."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바라밀이다. 바라밀이란 '가닿는다'는 뜻이다. 남이란 무엇인가? 크게 보면 또 다른 나이다. 남이란 내 분신이다(2002)."

스승은 평생을 '나는 나이고 싶다'라고 외치다 가셨다. 남다른 나를 드러내려면 제 빛깔을 잃지 않고 자유의지를 펼쳐야 한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말미암아 세운 뜻'이란 말이다. 그러나 살아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지며 어우러져 빚어지는 자연계에서 스스로 말미암아 세운 뜻으로 드리울 수 있는 그늘은 그리 넓지 않다.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백만분의 일(0.0000001)이나 되려나. 백만분의 일은 애개? 싶을 만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숫자이다.

1을 거듭제곱해서 나온 값에 거듭제곱하기를 백만 번 되풀이해도 결과는 1이다. 그러나 0.0000001이라는 꼬리가 붙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1.0000001을 거듭제곱해서 나온 값에 거듭제곱하고 또 그 값에 거듭제곱하기를 스물두 번까지 되풀이하니 1.5211이 된다. 겨우? 그걸 얻으려고 그토록 힘을 썼다는 말이지 싶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네 차례 거듭제곱하면 821.298로 껑충 뛰어오른다. 이쯤이면 보람찰 수 있을까? 이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값에 한 번 더 거듭제곱하면 67만 4천 5백3십쯤으로 십만 단위로 뛰어오른다. 여기 머물러 누릴 수 있지만, 거듭제곱하기를 두 차례 더하니 207,017,133,996,671,569,721,067(이천칠십해 일천칠백일십삼경 삼천구백구십육조 육천칠백일십오억 육천구백칠십이만 일천육십칠)이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값이 나온다.

참답게 살겠다는 작은 몸짓 하나가 거듭하기와 만나 커다란 '살림살이'를 이룰 수 있는 말씀으로 스승이 수행이 늘 새로운 복습이라고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을 독차지해서는 덧없다.

절 창건 설화에 흔하게 나오는 것이 연못을 독차지하는 독룡이다. 창건주들은 이 독룡들을 달래거나 꾸짖어 다스리고 그 터에 절을 짓는다. 절을 지으면 절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함께 생긴다. 나는 '독룡'을 독을 품은 용이라 받아들이지 않고, 독룡(獨龍) 혼자 독차지하려고 드는 용이라 여긴다. 용이 독차지하고 있는 물은 목숨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스님들이 물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를 타일러 나눠 쓰도록 하여 절을 짓고 서로서로 보듬으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었다는 말씀이다.

이처럼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소유, 우주가 준 선물을 나눠 써야 한다는 말씀이다. 스승이 "밥값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며 1994년 닻을 올린 '맑고 향기롭게'가 바로 나눠 쓰기 본보기를 보이는 모임 가운데 하나이다. 맑고가 본디 청정으로 본디 부처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향기롭게는 발보리심하고 행보리심하여 세상에 사랑이 메아리치도록 하는 것을 펼쳐 보이는 말씀이다. '맑고 향기롭게'를 상징하는 연꽃 여덟 잎은 팔정도를 일컫는다. 맑고 향기롭게 앞에 임자말을 세우면 오롯하다.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라고.

맑고 향기롭게는 커다랗게 무엇을 내놓고 떠벌리며 일하지 않는다. 모임에 나와 마음과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것을 몸에 익히고 나면, 저마다 제가 사는 터를 맑고 향기롭게 보듬으며 살아가면 된다.

나는 도법 스님이 앞장서서 펼친 '붓다로 살자'를 함께 해왔다. '맑고 향기롭게=붓다로 살자'로 받아들였기에 선뜻 어울릴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금이야말로 맑고 향기롭게 살림살이를 펼쳐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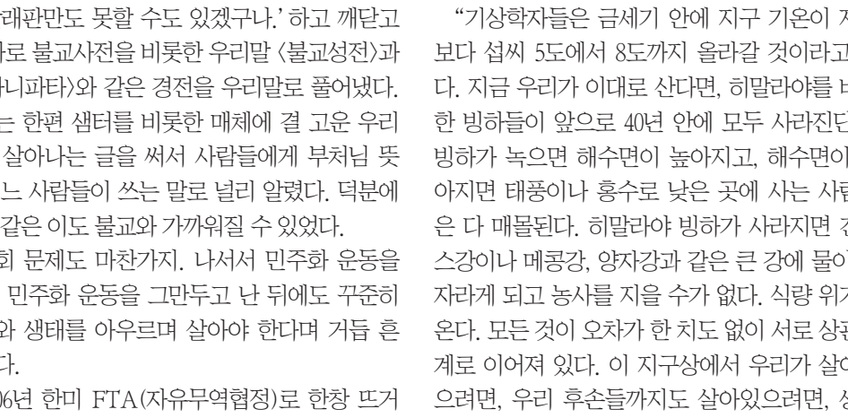
〈법정 스님 눈길〉 저자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검색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낙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선종 양대 축 반야론과 불성론



현견 스님의
중국 선 문화기행 Ⅱ

⑬ 위진남북조 시대 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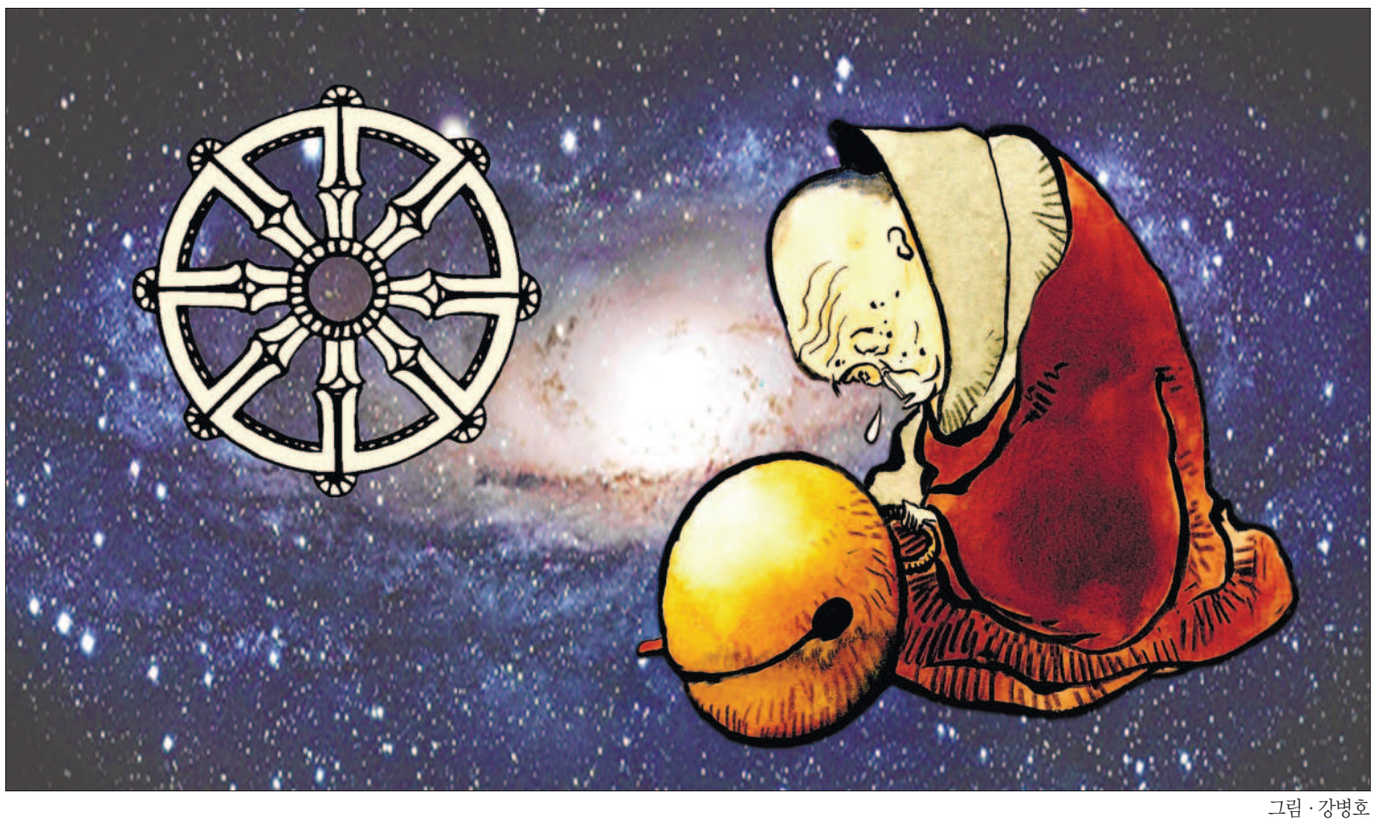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위진남북조 반야론, 불성론 유행
중국전통 '三玄' 반야중관과 닮아
당시의 문인 사대부 불자들 환영
'일체중생개유불성' 파격적 사상

위진 시대에 '반야론'이 유행했다면, 남북조시기에는 '불성론'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반야공사상은 '空'을 바탕으로 수립되었고 바로 본질을 깨닫는 것에 치중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론이 난해했다. 반면에 불성사상은 '有'를 바탕으로 형성된 이론으로 비교적 이해하기 쉬었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불성을 인지하거나 찾는 것에 치중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본질은 모두 깨달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이 두 종류의 사상은 선종사상의 양대 축을 이르고 있다.

한나라 말부터 유송(劉宋)시대에 이르기까지는 〈반야경〉이 유행했다. 동한(東漢) 때 지루가참(支婁迦讖)이 번역한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반야류 계통의 경전이 번역되었다. 또 주사행(朱士行) 도안 등 많은 이들이 반야사상에 대한 연구 내지 학습을 했다. 당시 반야사상을 노장학인 현학의 뜻을 의지해서 반야경의 뜻을 논석하거나 해석을 하였는데, 그것이 중국불교사에서 명명되어진 '격의불교'이다.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르러서 중국전통사상인 현학(玄學)이 유행하였고 현학 중에서도 삼현(三玄)인 〈주역〉〈노자〉〈장자〉 사상이 유행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현학은 대승불교 중에서도 특히 반야중관 사상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의 문인 및 사대부 불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 반야중관 사상은 양진(兩晋)시대에 이르러서는 반야학파가 육가칠종(六家七宗)으로 나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유행하였다. 그 가운데 요진 구마라습과 승조(僧肇)의 사상을 이어받은 반야사상을 기초로 한 삼론학파가 흥기하기 시작하면서, 반야공론과 중도불이사상은 당시 현학에서 주장하던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등을 사유 관찰하는 방법론 및 이론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육가칠종은 동진 시대의 스님들이 반야성공(般若性空)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것을 가리킨다. 육가칠종에 대한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의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승조의 〈조론〉 및 동진시기 도안이 육가칠종을 정리 혹은 평론한 것이 있고, 유송(劉宋) 시기에 장엄사(莊嚴寺)의 담제(曇濟)가 지은 〈육가칠종론(六家七宗論)〉과 수대의 길장이 지은 〈중론소(中論疏)〉 등에 비교적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육가칠종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본무종(本無宗)은 도안 승예(僧睿) 혜원 등의 관점이고, 두 번째 즉색종(即色宗)은 지도림(支道林)등의 관점이고, 세 번째 식함종(識含宗)은 어법란(於法蘭)제자 어법계(於法開) 등의 주장이고, 네 번째 환화종(幻化宗)은 축법태(竺法汰)의 제자 도일(道壹)등의 주장이고, 다섯째 심무종(心無宗)은 축법온(竺法溫) 도항(道恒) 지민도(支愍度)등의 주장이고, 여섯 번째 연회종(緣會宗)은 어도수(於道邃) 등의 주장이고, 일곱째 본무이종(本無異宗)은 축법탐(竺法琛)등의 주장이다. 이 중에서 본무종(本無宗) 즉색종(即色宗) 심무종(心無宗)이 당시 반야학의 주류가 되었다. 승조(僧肇)는 이 7종의 견해를 〈不真空論〉에서 '심무(心無) 즉색(即色) 본무(本無)' 등 세 가지로 귀납시켰다.

이렇게 위진 시기에 반야학이 유행해서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열반학이 서서히 흥기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성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같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열반경〉의 번역도 한몫을 했다. 특히 〈열반경〉이 번역되면서 불성론에 관한 여러 가지의 설이 제기되었다. 〈열반경〉은 여러 종류의 번역본이 존재하는데, 담무참(曇無讖)이 번역한 〈대반열반경〉의 불성론 관점이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대승불교에서 체계적으로 발전된 불성론은 중국불교의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진 이후 인성론에 관한 문제는 빠르게 불교사상에 반영되었고, 불교의 불성론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남북조 시기에 불성론의 문제는 당시 많은 불교도들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일체중생개유불성'이라는 사상은 각계각층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당시는 봉건주의시대로 신분과 계급적 서열이 엄격했던 사회제도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파격적인 이론이자 사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불성론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대목은 중국에서의 불성론의 발전과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중국불교사에서 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열반불성에 관한 경전은 이미 불교가 인도에서 유입된 시기인 한나라 말부터 소개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즉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 번역되기 이전에 중국에서는 대 · 소승에 관련된 〈열반경〉이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위진 남북조 시기에 중국에 번역된 〈열반경〉은 세 종류가 있다. 먼저 동진시기(北凉义熙14년, 418)에 법현과 각현이 합작으로 번역한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6권이다. 그러나 이 번역본은 〈열반경〉 전체를 번역한 것은 아니며, 경의 초분과 전5품을 번역하였다. 두 번째는 북량(北凉玄始10년, 421)에 담무참이 북량의 도성인 양주(지금의 武威市)에서 번역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40권이다. 〈열반경〉의 전체를 완전하게 번역한 번역본이다. 세 번째는 유송(劉宋元嘉年間, 424-453)에 혜엄(慧嚴) 혜관(慧觀) 및 시인인 사운영(謝靈運) 등이 위 두 개의 번역본을 근거로 다시 개편한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6권이다. 세칭 〈남본열반경(南本涅槃經)〉이라고 한다. 담무천이 번역한 〈대반열반경〉은 〈북본열반경(北本涅槃經)〉이라고 부른다. 담무천이 번역한 〈북본열반경〉이 남방에 전해지기 전에 〈남본열반경〉이 남방에서 유행했다.

담무참이 번역한 〈대반열반경〉의 핵심내용은 불신(佛身)은 상부불멸(常住不滅)하며 열반4덕인 상락아정(常樂我淨)과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경의 '사자후보살품'에서 보면 '불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부정적인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즉 "선남자야 불성이라는 것은 역색비색, 비색비비색 내지 역자비자, 비자비비자(善男子! 佛性者, 亦色非色, 非色非非色,...亦字非字, 非字非非字)."등의 형식이다. 한편 이 경은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경전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설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경의 초분에서는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을 구비하였고, 동시에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일천제(一闡提)는 제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의 후반부에서는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건데 아마도 이 경전은 긴 시간동안 이루어졌거나 혹은 경전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사상적인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중국에서 이 경전이 번역되고 나서 열반 불성론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열반경에 대한 연구 및 다량의 주석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서 비교적 중요한 주석서로 수나라 때 혜원이 지은 〈열반경의기〉 10권, 관정(灌頂)이 지은 〈열반경소〉 33권 및 〈열반경현의〉 2권, 길장이 지은 〈열반경유의〉 1권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위진남북조 때 중국불교의 열반학이 탄생되었다. 특히 동진 시기의 승려인 축도생(竺道生)은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6권의 내용인 일체중생이 모두 불성이 있으며 '일천제'까지도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마침내는 건강(健康, 현재의 남경)을 떠나게 되었다. 그 후 남방의 여산에 이르러서 〈열반경〉을 강설하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비로소 중국 최초의 열반사(涅槃師)가 생겨났다. 이로서 남북조 시기에 불성론 문제는 중국불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자 그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무엇이 불성인가' 이외도 당시 논쟁이 되었던 문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구비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당시 〈대반열반경〉인 〈북본열반경〉이 번역되기까지는 모두 '일천제'는 성불할 수 없다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축도생이라는 안목 있는 인물이 출현하면서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마도 경전 전체가 번역되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많은 공격과 비방을 당하였지만 마침내 그의 관점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것은 〈열반경〉의 전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즉 전반부에서는 "무엇이 일천재의 이름이 되는가? 일천제라는 것은 일체선근이 단멸되었고, 본심이 일체선법을 반연하지 못하며, 내지 일념의 선도 내지 못한다"고 일천제를 설명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두 종류의 일천제가 있다. 하나는 현재 선근을 얻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후세에 선근을 얻는 자이다. 여래는 일천제 무리가 현재에 선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곧 위해서 설법을 한다. 후세에 얻는 자를 위해서도 또한 설법을 한다. 지금은 비록 무익하지만, 후세에 인을 짓기 때문이다. 이런 연고로 여래는 일천제를 위해서 법요를 연설한다. 다시 일천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근(利根)자이고, 다른 하나는 중근(中根)자이다. 이근인은 현재 능히 선근을 얻을 수 있고, 중근인은 후세에 곧 얻는다. 제불세존의 설법은 헛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천제가 현세는 비록 성불하지 못하더라도 인을 심어두면 반드시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열반경〉 후반부 도처에서 일천제에 대한 불성과 성불의 문제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현실속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육신적 정신적인 자유를 원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원한 자유가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해탈론을 논하면 반드시 수반되는 사상이 바로 불성론이다. 당시는 봉건주의 시대로서 신분 서열이 엄격한 계급제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자유롭지 못했고, 또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봉건적사회의 압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고, 불성론의 문제가 대두되자마자 당시의 중국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동국대 강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사회변혁 이끈 민주화 운동 구심점



최재희의
비긴어게인 미얀마

⑬ 미얀마 승단 과거와 현재 2





사진 좌, 우는 2007년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불수령이 된 '샤프론 혁명' 당시 모습. '샤프론' 은 미얀마 스님의 가사색깔인 연황색을 의미한다.

문학을 좋아하는 나로서 만해 스님과 법정 스님의 글은 다른 작품들보다도 더 자주 읽게 된다. 스님들을 공경하는 마음에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만해 스님과 법정 스님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불교가 사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 불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백성들과 함께 해왔지만 조선 시대가 되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전 시대보다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두 스님의 공통점은 '문학' 과 '사회참여' 이다. 만해 스님은 '님의 침묵' 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큰 노력을 하셨다. 법정스님 또한 '무소유' 라는 수필집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셨고 '맑고 향기롭게' 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현대의 한국 사회 속에서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국 사회 속에서 스님들이 참여 불교 모습을 보이면 대승불교(大乘佛教)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 혹은 '자리이타(自利利他)' 의 특징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징이 '소승불교(小乘佛教, 상좌부불교)' 에서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과는 차별된다는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다.

미얀마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가끔 나에게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미얀마에서 대승의 정신을 많이 알리고 와라"라는 다소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신다. 사실 유학을 가기 전, 책으로만 접한 상좌부 불교에는 대해서는 나 또한 부끄럽게도 많은 선입견을 품고 있었다. 유학하면서 미얀마 승단의 사회적인 역할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나의 모든 잘못된 선입견은 한 장의 유리가 깨지듯이 산산조각나버렸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샤프론 혁명(Saffron Revolution)에서 스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좌부 불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미얀마에서 유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낀 미얀마 승단의 사회적인 역할을 통해 기존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되었다. 바간 시기부터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승단의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스승' 이라는 역할이 미얀마 현대 시기에 맞춰 변화되었다.

8888 민주화운동 속 시민 의지처

"민주주의는 부처님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988년 8월 8일 미얀마에서는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8888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미얀마 국민들의 대다수가 참여하게 되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얀마 승단의 참여로 군부정권의 정치적 위치는 아주 위태롭게 되었다. 미얀마 승단은 직접적인 비폭력 민주화 시위 참여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에게 법문을 통해서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었다.

군부정권은 대규모 시민들과 승단의 민주화 운동 참여에 대한 불안감으로 '민주화 운동=서구의 문명' 이라는 명분을 통해 거부했다. 하지만 미얀마 승단과 미얀마 국민은 군부정권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미얀마 역사와 문화 자체에 담긴 '불법(佛法)' 에는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요소가 담겨 있다고 반격했다. 미얀마 스님들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법에 담긴 민주주의 요소에 대한 점을 미얀마 국민에게 설명해주었고, 국민은 미얀마 승단으로부터 민주화 운동이 단순히 서구의 문명에서 유입된 것이 아님을 알고 정신적인 인정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인생의 스승' 인 미얀마 승단에 인정을 사회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미얀마 국민 중 일부인 군부정권에도 엄청난 사회적 · 정서적인 치명타를 받게 되었다. 8888 민주화 운동이 발생한 지 2년 뒤인 1990년도 8월 8일에 미얀마 승단을 더욱 화나게 한 일이 발생했다. 만달레이 스님들이 탁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줄지어 가고 있었고 그 뒤에 민주화 운동 2주년을 기념하는 학생들의 행진이 이어졌다. 군인들은 2년 전과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까 두려워 학생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학생들을 겨눈 총구에 탁발을 하던 약 11명의 스님이 맞았고, 14명의 스님들은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군부정권은 스님들이 총에 맞고 구타당한 것을 언론을 통해 전면 부정했다. 하지만 '만달레이 승단 총격사건' 의 은폐는 미얀마 승단의 직접적인 군부정권 반대 시위를 일으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1990년 8월 27일 약 7000명의 스님이 모여 '미얀마 군부정권과 그들의 가족에게 시주를 받는 일과 불교 의식을 거부'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견해를 밝힌 직후부터 군부정권과 교류하는 스님은 사실상 파문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미얀마 승단의 군부정권에 대한 '선언' 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 세력에 큰 힘이 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검진받는 스님들.

사회참여 중심인 미얀마 승단
상좌부 불교 선입견과 달리
미얀마인의 삶에 구심점 돼
8888 · 샤프론 민주화 운동도
승단 전폭 지지로 시위 주도

샤프론 혁명은 스님들이 직접나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지하는 시위
평화적 반정부 시위로 국제적 관심

2007년 '샤프론 혁명' 중심도 승단

8888 민주화 운동에서 미얀마 승단은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미얀마 국민의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2007년 샤프론 혁명(Saffron Revolution)을 통해 미얀마 승단은 '군부정권' 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시위의 중심이 되었다. 이 혁명에서 '샤프론' 은 미얀마 스님들의 가사(袈裟) 색깔인 연황색을 뜻한다. 샤프론 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2007년 8월 15일에 군부정권이 예고 없이 연료 가격을 최대 500% 올렸다. 8888 민주화 운동의 중심축이었던 88세대 민주화운동 그룹이 연료 가격 상승에 대해 군부정권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군부정권은 곧 잔혹하게 민주화 운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2007년 8월 말 미얀마 승단이 주축이 되어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수 만명의 승단이 시위를 주도했다. 승단이 중심이 된 이 시위에는 미얀마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미얀마 승단의 평화적인 반정부시위를 막기 위해 군부정권은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스승인 스님들에게 최루탄을 던질 정도로 그들은 다급해졌다. 스님들은 폭력사태에 대한 사과와 억류된 모든 시위대와 민주화 운동가들의 석방 그리고 연료가격 인상으로 악화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군부정권에 요구했다.

많은 해외 언론들은 미얀마 승단의 움직임에 '샤프론 혁명' 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대서특필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샤프론 혁명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 기념행사에서 스님들은 군부정권과 미얀마 국민들과 미얀마를 위해 자비경(Mettā Sutta)을 독송했다. 미얀마가 민주화를 어려운 과정에서 이룰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미얀마 승단의 간절한 염원이 존재해서 가능했다.

코로나 19가 발생한 현재에도 미얀마 승단은 미얀마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얀마의 고승 중 한 분인 시따구(Sitagu) 큰 스님은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는 약 500여 명의 미얀마 스님, 재가자들을 위해 비행편을 준비하고 사가잉에 위치한 시따구 불법학교에 자가격리시설을 마련하여 21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님들의 경우에는 자신 소유의 돈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때 500불 상당의 거마비(車馬費)까지 챙겨주고 있다.

미얀마 승단은 과거의 찬란했던 바간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현재까지도 미얀마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든든한 스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폭력적인 군부정권에게조차도 숫타니파타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든 살아 있는 것에 자비심을 내라"는 구절처럼 행했다. 타인에게 자비인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평화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자비의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행이 필요하다. 수행을 통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면 평화를 위한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상좌부 불교가 자신의 깨달음만을 위해 수행하는 불교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미얀마 승단의 행(行)을 통해 변화되길 바란다.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의 궁극적인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불이사상(不二思想)이 떠오른다.

〈양곤대 박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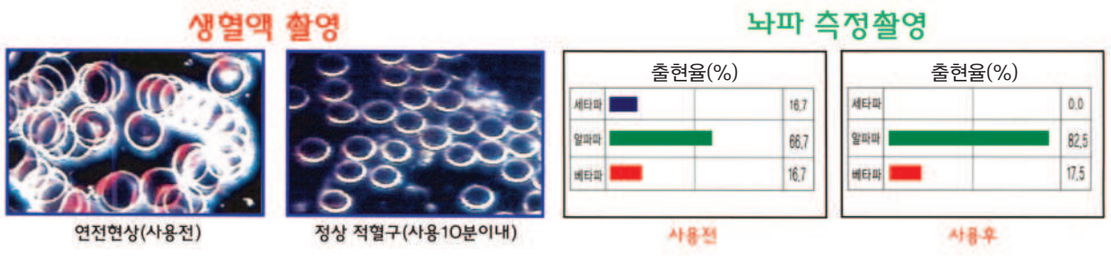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킨다!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체외에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까지 BLOOD MATE®비누

폐렴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BLOOD MATE®비누는 보약을 먹은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것도 아닌데 BLOOD MATE®비누를 단 한번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BLOOD MATE®비누로 샤워하고 물기를 닦은후 재차 샤워타월을 깨끗이 빨아 짠 후 비누를 다시 묻혀서 거품을 내어 머리부터 발바닥, 발가락 사이까지 거품으로 맛사지하면 머리거품이 가발을 쓴것 같지만 전신을 맛사지하는 동안 거품이 세포속으로 스며들고 전신의 거품도 세포속으로 스며들며 거품이 없어지면서 허리통증, 어깨, 목아픔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가려움증, 비듬, 발뒤꿈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때를 일부러 밀지 않아도 거품으로만 마사지해도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투명한 피부는 물론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의 효과가 있다.

체내에는 구강부터 항문까지 ORAL MATE®치약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양치 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면 구강부터 항문까지 사이에 폐렴균에 의한 질환 예방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과음 시에는 양치 후 먹으면 속이 빨리 편안해지고 해독되면서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잇몸이 튼튼해지며 이나 잇몸이 아플 때에는 아픈 부위에 치약을 그대로 발라만 줘도 밤새 통증이 사라집니다. 팔과 다리에 피가 나는 정도의 상처에 치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덮어 주었는데 통증도 없고 3일이 되니 깨끗이 상처가 나아버린 체험을 했습니다.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하는 ORAL MATE®치약은 저녁 식사 뒤 양치 후 삼켜버리면 입안의 세균이 없어짐은 물론, 구강부터 항문까지 건강해지고 매일 고질적인 구취까지 없어져 입안이 개운한 것이 특징입니다.

BLOOD MATE® 강비누:25,000원2개 = 5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5개 = 75,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88,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세정제인 비누, 치약이 별도의 추가부담없이 비누는 피가 맑아져 혈액순환 정상화에 의한 피부질환 개선, 치약은 잇몸건강은 기본이고 소화불량,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진다면 이는 정부가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하고 장려 육성하는 것이 국가의 올바른 정책입니다.

몸뚱이는 주인 없는 물건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㉖ 사대(四大)

"여러분, 그대들은 꿈과 허깨비 같은 몸뚱이를 잘못 알지 말아야 한다. 더디거나 늦거나 간에 무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니라.

그대들은 이 세계 가운데 무엇을 찾아 해탈하려 하는가? 그저 밥 한 숟가락 찾아 먹고 누더기 꿰매 입고 시간 보내기보다는 우선 선지식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라. 엄벙덤벙하면서 쾌락을 쫓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아껴야 하느니라. 생각 생각이 덧없어 거칠게는 지(地) · 수(水) · 화(火) · 풍(風)이 덧없고, 미세하게는 생(生) · 주(住) · 이(異) · 멸(滅)의 네 가지 모습이 핍박해 오고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 · 수 · 화 · 풍의 네 가지 모양 없는 경계를 깨달아 알아서 그 경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라."

사대(四大) 육신의 몸을 '몽환반자(夢幻伴子)'라 하여 이 몸이 꿈과 허깨비 같아 조만간에 무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몸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꿈속에서 또 꿈을 꾸지 말라는 말이다. 서산대사의 삼몽사(三夢詞)를 생각하게 한다.

主人夢說客 주인을 꿈을 손님에게 말하고
客夢說主人 손님은 꿈을 주인에게 말하네
今說二夢客 지금 꿈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나그네여
亦是夢中人 꿈속의 사람이 꿈 이야기 하는구나

금강산을 내려와 길을 가던 서산대사가 도중에 있는 어느 주막집 바깥 마루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주막 안에서 주인과 손님이 서로 자신이 간밤에 꾼 꿈 이야기를 상대에게 들려주는 것을 엿듣고 지은 즉흥시이다. 인생이 한바탕 꿈이라면 꿈은 깨고 볼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제는 허망한 육신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무상(無常)을 말하며 시간을 아껴 정진할 것을 대중에게 주문하였다. 무상에도 찰나무상과 일기무상이 있다. 지 · 수 · 화 · 풍 4대를 말한 것은 일기무상에 속하고 생 · 주 · 이 · 멸 4상은 찰나무상에 속한다. 또 무상은 식심생멸(識心生滅)의 경계이다. 상(相)이 없는 공(空)을 깨달으면 무상을 벗어나는 것이다.

구마라습의 수제자였던 승조(僧肇) 법사는 벼슬을 맡아 달라는 왕명을 거역했다가 31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유명한 임종게(臨終偈)를 남겼다.

四大元無主 사대는 원래 주인이 없고
五蘊本來空 오온은 본래 공한 것일 뿐
將頭臨白刃 칼날이 내 머리 내리치겠지만
恰似斬春風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으리라.

사대와 오온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다. 내 몸뚱이가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는 말이다. 마음이니 정신이니 하는 것도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다. '칼날이 내 목을 내리쳐도 봄바람을 베는 것에 불과하리라' 고 한 이 말에서 생사를 초월한 공의 달인임이 느껴진다.

승조는 묘공(妙空)을 내세우기도 했다. 그것은 상대적 공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이라고 주장하여 유(有)를 포함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를 천명한 내용이다. 이렇게 공에 대하여 철저한 이론을 내세운 그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수보리처럼 해공제일(解空第一)이라 불리었다.

〈반야심경〉에서도 '오온개공(五蘊皆空)' 을 설하여 일체의 상(相)을 부수고 있다. '사대가 공하고 오온이 공하다' 는 것은 깨달음을 향하는 불교 수행의 중요한 관문이다. 공(空)을 통달해야 반야를 얻는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禪三宗 삼교 경론에 의거 회통



세상 속 경전읽기

㉖ 공성상(空性相) 선교삼종(禪敎三宗)

종밀(宗密 · 780년~841년)은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에서 교선일치(敎禪一致)를 제창하였다. 곧 수많은 선종(禪宗)의 갈래를 공 · 성 · 상(空 · 性 · 相)의 삼종(三宗)으로 통합분류하고, 교종(敎宗) 또한 공 · 성 · 상의 삼교(三敎)로 분류한 후, 선삼종(禪三宗)을 교삼종[敎三宗. 곧 삼교(三敎)] 경론에 의거해 회통한 것이다.

달마대사가 동토에 선종을 전파한 이후, 중국에서 선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당나라 때 황실과 귀족의 비호를 받으며 번창하던 교종이 점차 쇠퇴하고, 자급자족을 추구하며 지방 신흥관료의 지지를 받던 선종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에 선종에 수많은 종파가 생기고, 각 종파 간에 자기가 전수 받은 종지(宗旨)만을 국집(局執)하고, 다른 종파를 폄훼하는 사상적 대립이 난무하였다.

종밀은 "일체중생의 본각진성(本覺眞性), 곧 불성(佛性), 심지(心地)가 선의 근원[禪源]이며, 이를 깨닫는 것이 혜(慧)이고, 이를 닦는 것이 정(定)이어서 정혜를 통칭해서 선(禪)이라 한다"고 하였다. 참성품[眞性]이 선의 바탕[體]이며 참성품이 미혹되어 번뇌를 따르면 산란하다고 하며, 번뇌를 떠나 참성품에 합일하면 선정(禪定)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성(本性)을 직접 논하면 참[眞]도 망녕된 것[妄]도 아니고, 등지거나[背] 합일할 것[合]도 없고, 선정도 산란도 아니니, 선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성품[眞性]은 선의 근원뿐 아니라, 만법의 근원인 법성(法性)이고, 중생 미오(迷悟)의 근원인 여래장(如來藏)이고, 모든 공덕의 근원인 불성(佛性)이고 보살만행의 근원인 심지(心地)이다.

"지극한 도는 귀일(歸一)하니 참뜻은 둘이 아니므로, 마땅히 둘로 나뉠 수 없다. 지극한 도는 (양)변(邊)이 아니고, 궁극의 뜻[了義]은 치우치지 않으니, 한 쪽만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를 하나로 회통시켜 모든 가르침이 원만해 막힘이 없어야 한다." [至道歸一精義無二°不應兩存°至道非邊了義不偏°不應單取°故必須會之爲一令皆圓妙°]

〈禪源諸詮集都序 T2015_.48.0400c13-15〉

선종의 각 분파가 선의 근원에서는 같은 것이나, 사람의 집착[我執 · 法執]이 개입되어 서로 어렵게 다투니 나를 버리고 법에 따를 일이다.

"법을 사람에 따르게 하는 까닭에 어려운 것이요, 사람을 법에 따르게 하면 쉬운 것이다."

[謂以法就人即難。以人就法即易。]

〈禪源諸詮集都序 T2015_.48.0400c18〉

선삼종(禪三宗)은 다음과 같다. 불성을 덮고 있는 무명[망념]을 수행으로 소멸하는, 식망수심종[息妄修心宗. 상종(相宗)]은 신수의 북종 등이 있다, 본래 공적하여 의지할 어떠한 것도 없다는 가르침인 민절무기종[泯絶無寄宗 · 공종(空宗)]은 혜능의 남종 등이 있다. 제법(諸法)이 바로 진성의 표현이나 진성은 무위로서 그 체(體)가 곧 제법은 아니어서 범성(凡聖), 인과(因果) 선악(善惡)도 아니나, 제법을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인 직현심성종[直顯心性宗 · 성종(性宗)]은 홍주종과 하택종 등이 있다.

교삼종(敎三宗)의 밀의의성설상교[密意依性說相敎 · 상종]는 법상종이 있고, 밀의파상현성교[密意破相顯性敎 · 공종]는 삼론종이 있고, 현시진심즉성교[顯示眞心卽性敎 · 성종]는 〈화엄경〉, 〈열반경〉 등의 예가 있다.

"요점을 들어 말하자면, 국집(局執)하면 바로 모두가 그릇되고, 회통하면 바로 모두 옳으니, 만약 붓다의 말씀으로 각기 그 뜻을 나타내고 각자의 장점을 받아들여, (선종을) 삼종(三宗)으로 통합하여 (붓다의 가르침에 의거한) 삼교(三敎)에 배대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들을 회통시켜 일대 선교방편을 삼아 요긴하고 묘한 법문을 함께 이루어, 각자의 정실(情實)을 버리고 함께 지혜의 바다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직 붓다의 설(說)한 바만이 곧 다르면서 같기 때문에, 불경을 기준으로 해서 셋을 회통하여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禪源諸詮集都序 T2015_.48.0400c21-25〉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⑫ 닦음의 길 12

정진에도 중도가 필요

군대 훈련병 시절 종교 활동으로 불교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단순했다. 법회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배려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잠을 3~4시간밖에 잘 수 없는 형편이라 먹을 것으로 유인하는 개신교나 천주교보다 불교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훈련소 마지막 법회 시간에 갑자기 수계식을 하는 것이었다. 얼떨결에 연비를 하고 법명도 받았다. 그때 받은 법명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불교에 입문한 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계(戒)를 받았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었다. 그래서 존경하는 스승님께 부탁했더니, 지금 필명으로 쓰고 있는 일야(一也)라는 법명을 주셨다. '하나' 라는 뜻도 있지만,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하면 '이랴, 이랴!' 가 된다. 소가 가지 않을 때 채찍질을 하면서 내는 소리로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법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글을 쓰거나 책을 출판할 때 필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육바라밀 가운데 네 번째는 정진바라밀이다. 이는 팔정도의 정정진(正精進)과 다르지 않은 실천으로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다. 정진은 열반의 언덕으로 향하는 대승호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엔진의 힘이 좋아야 배가 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수행 에너지가 충분해야 깨침의 언덕에 이를 수 있다. 출가 후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정진했던 붓다의 경험에서 나온 덕목이다. 그런데 정진에도 중도(中道)의 실천이 필요하다. 수행의 힘이 약하면 피안으로 향하는 배를 움직일 수 없고, 반대를 지나치게 힘을 가하면 과부하가 걸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경우 모두 배가 순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의 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붓다는 출가 후 당시의 유행에 따라 6년 간 혹독한 고행을 하게 된다.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행을 실천했지만, 돌아온 것은 망가진 육체와 정신뿐이었다. 붓다가 고행을 버리고 중도를 선택한 이유다. 이런 경험은 제자를 가르칠 때도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제자 중에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공부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실망한 나머지 수행을 그만두려 했지만, 붓다는 소나가 출가 전 거문고를 잘 탔던 사실을 알고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소나여, 거문고와 마찬가지로 수행도 너무 지나치면 마음이 격앙되어 조용하지 못하고, 또 너무 느슨하면 게으름에 빠지게 되느니라. 따라서 소나여, 그 중도를 취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소나는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중도를 설명할 때마다 예로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다. 중도란 한마디로 '적절함' 이다. 더운 여름날에는 가볍고 얇은 옷이 적절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것이 적절하다. 그것이 옷 입는 중도다. 일중독에 빠진 사람에게는 휴식이 중도며, 게으른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도다.

중국 고전인 〈장자〉에 이런 우화가 나온다. 그림자를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림자가 자꾸 자신을 따라오자 이것을 떨쳐내려고 더 빨리 달렸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빨리 뛰어갈수록 그림자는 더 빨리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일까? 바로 그늘이나 건물 속으로 들어가 쉬는 것이다. 이것이 중도의 지혜다.

중도라는 시선에서 보면 열심히 한다는 것과 지나치다는 것은 분명 다르다. 붓다가 고행에서 중도로 방향 전환을 했던 이유를 잊지 말기로 하자. 그는 지나친 것이 아니라 중도에 입각한 바른 정진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붓다의 마지막 유훈 역시 모든 것은 무상(無常)하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당부였다. 그것이 대승에 이르러 정진바라밀로 해석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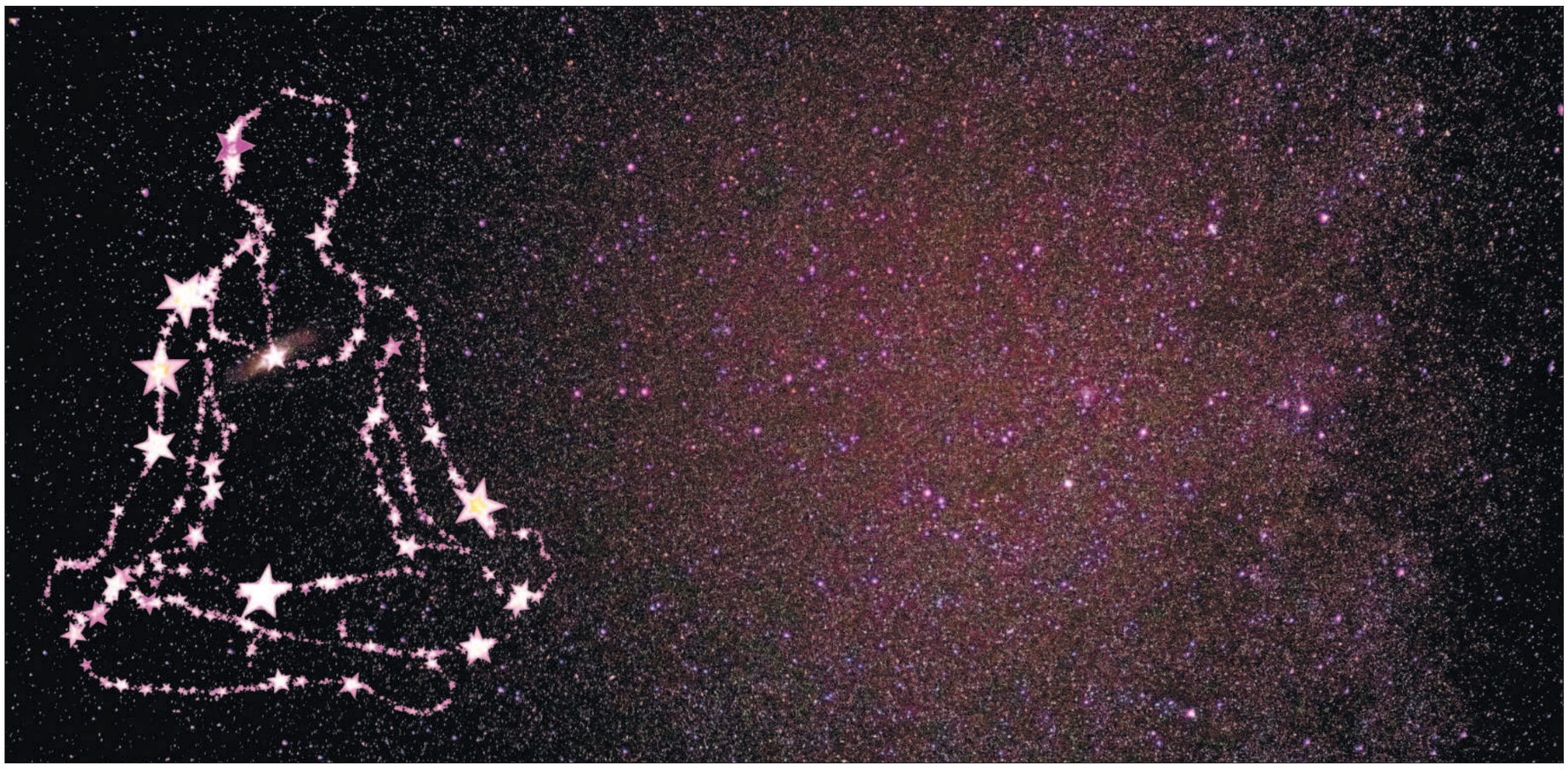
붓다가 지나치게 편리하고 감각적인 것만 좇고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을 본다면 과연 무엇이라 했을까? 자신은 버렸지만, 현대인에게는 고행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게으름에 빠진 우리에겐 고행이 중도이니 말이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채찍질해본다.

'이랴, 이랴!'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무상을 통해 무아를 깨닫다



명상書 톺아보기

정준영 교수의

'위빠사나 이야기-있는 그대로'

〈2〉 수행법으로써의 위빠사나

오늘날 어떤 수행 방법으로 지혜를 계발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위빠사나 수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위빠사나(觀)와 사마타(samatha, 止)를 함께 하는 수행과 위빠사나만 홀로 진행하는 수행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가지 구분은 또 다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분화된다. 본서에서는 편의상 위빠사나 만으로 진행하는 순수위빠사나(純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순수위빠사나 수행법은 초기경전보다는 5세기에 집필된 붓다고사의 '청정도론(淸淨道論, Visuddhimagga)'과 주석문헌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붓다의 수행법이라기보다는 붓다의 수행법을 바탕으로 후대에 만들어진 수행법이다. 붓다의 열반 이후 거의 천년 동안의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초기경전에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그 내용 또한 세밀하고 정교해졌다. 이와 같은 흐름은 미얀마의 불교 전통을 통해 더욱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정학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위빠사나라고 할지라도 계정혜 삼학을 추구한다. 또한 사마타를 통한 선정(禪定, jhana)의 성취를 거부하지만, 초보 수행자를 위해 집중을 돕는 개념적 방법을 차용하기도 한다.

현재 미얀마에서 진행되는 순수위빠사나 수행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인 순수위빠사나 수행법으로는 마하시 위빠사나, 순룬 위빠사나, 쉐우민 위빠사나를 들 수 있다. 이들 셋은 공통적으로 위빠사나만으로 수행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로 순룬 사야도의 수행 방법을 가르치는 순룬 위빠사나는 손을 쥐는 방법부터 가르친다. 그 이유는 고정된 자세로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춰 호흡을 하다 보면 호흡이 풀무질하는 것처럼 강렬해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를 참기 위해 손을 꼭 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코 끝에 닿는 강렬한 호흡의 감각에 50분간 집중하고, 나머지 50분간은 호흡을 내려놓고 몸의 느낌을 주시한다.

반면에 쉐우민 사야도의 쉐우민 위빠사나 수행법은 몸에 대한 주시보다는 마음에 대한 주시를 강조한다. 이 수행은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 일어난 마음과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행자는 주시를 계발하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행동하거나 명칭을 붙이는 마하시 방법과는 다른 길을 걷는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유지하며 마음을 주시한다. 이들 순룬 사야도와 쉐우민 사야도의 위빠사나 수행법에 대해서는 5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다.

마하시 사야도의 위빠사나 수행법은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수행법이다. 서양에도 소개되어 심리치료 방법으로도 활용되면서 불교 수행법에 머물지 않고 명상이란 이름으로 재탄생되었다. 마하시의 위빠사나는 순룬이나 쉐우민과는 또 다르다. 호흡을 통한 배의 움직임을 주시의 기본 대상으로 삼고, 행선과 좌선을 병행한다. 또한 주시의 힘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걷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대상에 명칭을 붙인다.

마하시 위빠사나 수행은 센터장의 경험이나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시 세분화된다. 빤디따라마, 삿다마란시, 찬메이 위빠사나 수행센터 등이 마하시 사야도의 가르침 안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그들의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위빠사나 수행은 각각의 지도자와 수행 전통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된다. 이외에 해외에 소개되지 않는 미얀마의 위빠사나 수행법들도 존재한다. 미얀마 외의 다른 상좌부불교 국가의 수행법들까지 고려한다면 위빠사나 수행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방법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한 위빠사나 수행법 중에서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위치한 마하시 수행센터의 수행법을 중심으로 시작할 것이다. 필자는 이곳에 여러차례 방문하여 우 와사와 사야도와 우 자띨라 사야도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책에 소개되는 내용은 마하시 사야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되, 두 스승의 가르침도 함께 담았다.

> "몸과 마음대한 주시와 집중을 활용해 바른사유, 지혜를 계발한다"

먼저 수행자가 어떻게 위빠사나를 시작하고 진행하는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동시에 행주좌와의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행의 전반적인 유의점도 살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좌부 전통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가능한 초기경전의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할 것이다.

위빠사나가 어색한 수행자의 경우, 이 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소개하는 방법들을 모두 실천하라는 것은 아니다. 수행자는 잠깐 동안의 수행에서부터 그것을 지속하고 반복함으로써 시나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성공이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5분, 10분, 30분, 1시간 수행하는 것도 좋다. 얼마간이라도 정확히 수행하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진정한 휴식의 세계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의 피로감 해소와 아울러 생활의 활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두달정도 집중수련을 경험한다면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만날 것임이 분명하다.

몸이나 마음이 괴로운 사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이 수행을 통하여 '나'라는 생각의 허와 실을 정확하게 볼 것이다. 위빠사나는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일으키고, 자신과 남들을 보호하며, 슬픔과 비탄, 갈애와 불안,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조건없는 최상의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수행이다.

붓다의 중심 가르침

붓다의 시대, 인도에는 특유의 신분제도인 카스트(caste)가 존재했다. 부모에 의해 태어난 계급은 바꿀 수 없었고, 숙명처럼 살아야만 했다. 붓다는 이러한 고정된 운명을 거부했다. 사람은 계급을 떠나 누구나 평등하고, 노력을 통해 발전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계급은 숙명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라고 보았다. 붓다는 이러한 발전과 계발을 '바와나'라고 불렀다. 바와나는 오늘날 수행(修行) 혹은 명상(瞑想)으로 번역한다. 불교수행은 이처럼 변화와 발전에서 시작한다.

깨달음을 얻기 전 싯다르타는 출가하여 6년간의 고행의 길을 걷는다. 당시 유행한 고행법들을 통해 고정불변의 실체, 즉 아뜨만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그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아뜨만을 찾지 못한다. 그는 중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고정된 실체를 부정하는 변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발전은 깨달음의 핵심 키워드였다. 무상에 대한 이해의 시작은 무아에서 완성된다. 무상의 이해는 결국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알게 한다. 위빠사나는 무상을 통해 무아를 체득하는 방법이다.

수행자가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아 삼법인을 통찰하고 지혜를 통해 무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빠사나는 그 다양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다시 붓다의 중심 가르침으로 귀결된다. 아무리 다른 전통의 위빠사나 수행법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붓다가 설하신 계정혜 삼학의 길을 벗어나기 어렵다. 어떠한 위빠사나 수행법이라도 팔정도와 분리하여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팔정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팔정도 전체를 아우르는 중도가 위빠사나이다.

따라서 위빠사나 수행자는 먼저 계를 지키고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불선을 막아 끊고 선함을 계발 유지하는 노력과 더불어 주시와 집중을 활용한다. 수행자는 이 과정에서 분명한 앎을 지니고,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와 감각적 욕망과 나쁜 사유가 없는 바른 사유라는 지혜를 더욱 계발하게 된다. 이처럼 위빠사나는 삼학을 통해 지혜를 계발하는 수행법이다. 중도를 통한 붓다의 깨달음이 곧 위빠사나의 길이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서봉사
- 스님명 : 명 음 (속명 : 성지현)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54길 34 (이천동439-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법제사
- 스님명 : 상 일 (속명 : 장상일)
- 주 소 : 부산 중구 보수북길 33-4 (보수동 1 가)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굴셀건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00호 | 15 | 전면광고

너희 비구여, 만일 지혜가 있으면 곧 탐착이 없어지는 것이니, 항상 스스로 자세히 살피어 그것을 잃지 말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①네이버
운명자가진단 손금보기
②유튜브
손도사 동영상
인간계발과 MBTI연구원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그린그린 및 심리상담치유
한의학전공, 한중역학대학원석사증, 철학박사학위증, 심리상담치유자격증 2011-12-82948호 / 사업자등록번호 576-10-00995호 / 통신판매업신고증 제2019-전남보성-00002호
모든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법 / 병원에 다녀도 치유가 안되시는 분 / 불면증 / 스트레스 및 화병 / 우울증 / 조울증 / 노인및 건망증 클리닉 / 여성및 갱년기클리닉 / 소아청소년상담 / 부부상담 / 정신장애 / 두통 / 빙의
* 치매상담후 한달이내 완치 *
010-4866-8055 / 061-852-1003

사주 궁합 이름 택일 타로
당신의 고민을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바로전화주세요.
** 전화상담 가능 **
02-927-2683

입종 동참안내
*****
부처님의정원 · 사암 · 포교원
선원 · 불교문화원 · 종단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기도도량(참나선원)
경남최고의 명산에서 비구니스님, 무속보살님 인연을 찾습니다.
결혼하실 남여 인연을 맺어줍니다
절(기도터) 파실분, 구하실분 (급)매도합니다
010-3257-5182

• • •
팔공산 천년고찰
운전도 하고 주지스님
수발하실 보살님 구함
(50대~60세)
• • •
010-8833-4416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생각대로 되는
기도법을 전수, 스님에 한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산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대중스님 후원봉사하실
신도님 기다립니다.
• • •
010-3928-7083
055-382-7083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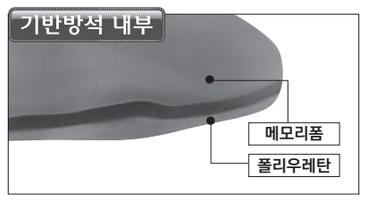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00호 | 16 | 전면광고

사람의 수명은 짧고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늙음과 죄함이 침범하면 구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서 빨리 불법에 들어가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별역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500평
◎ 건물3동
◎ 북한산차량진입
◎ 매가 : 8억1천5백

◎ 위치 : 경기
◎ 부지 : 210평
◎ 건물 : 대웅전,요사
◎ 신도시중심
◎ 매가 : 7억5천만원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사찰순례,채권상담,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3층 법당(큰법당)

010-3162-3376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유황사우나 부근3층
- 약 50평, 방3개, 옥상사용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금 약간

010-2074-6825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 보증금 500만, 월 45만
-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010-5718-007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 찰 안 내

- 위치 : 최신식 임법당. 경남. 아주 위치좋음. 선전최고위치 궁궐 꽃도량. 신도많음. 스님. 무속인 환영. 최고 위치좋음.
- 건평 52평. 대지 200평 정도.
- 앉아만 있어도 돈 들어오는 최고 요지.
- 가액 삼억 팔천 절충 가능.

010-4137-13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대웅사
- 토지 : 5,830평(종교용지 1,700평, 산168-2번지 4,130평)
- 건물 : 대웅전1동, 요사채(1,2층)1동, 기도방1동(납골당용)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매수조건부 장기임대(매수대금 분할상환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 1층 요사 30평, 14평
- 2층 30평 법당
- 주차장 확보
- 가액 : 3억 9천만원

010-5804-5100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안다리 5분거리
- 물건 : 260여평, 법당, 요사, 종각
- 주변이천세대, 시세 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만원(은) 2억3천 포함

- 부산 장림역1km 토지 5천여평
- 신촌초 옆 주거지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 포함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5억5천(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포교당(급)안내

- 위치:경북 포항시 오천
- 2층(60평)전체
- 삼존불, 탱화, 소불
- 완전 현대식 수리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1억 2천만원

010-2857-2811

5층코너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내 최고요지, 아파트 앞
- 평수 : 대지 80평, 건평 약230평, 대리석건물, 점포6칸임,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상가임
- 4층 : 주인세대 47평, 방4칸, 화장실2, 넓은거실, 모두 수리완료
  3층 포교원 : 47평 최신설비 불단조성, 종무소 스님방, 남녀화장실, 주방, 세면장, 도시가스 단, 부처님, 탱화, 기타 법기물 일체는 매매에서 제외함
- 참고사항 : 포교원 경영하면서 상가수입 득합, 주차장있음, 도시가스, 일조권, 조망권 최고, 생활편리 주변 문화시설 대형마트
- 급매가격 : 7억 5천만원(스님 노환관계로) 금융융자 : 3억 5천만원, 상가보증금 4천만원

010-9011-7230

사찰(급) 안내

- 위치 : 서울시 정릉, 국민대학 건너편
- 171번지 버스종점 옆
- 스님의 50년된 암자
- 약10평정도 텃밭 있음
- 성북구청에서 무허가 대장이 등록된 집이라 명의 이전됩니다.
- 스님이 호주 이민관계로 양도함
- 매매 5천만원, 권리금 2천만원

010-5399-1225

인천사찰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 : 창고형, 1층 : 공양간(방3개, 화장실), 2층 : 방3, 화장실, 3층 : 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정상 급양도함, 사찰연력 : 40여년) ● 답사하실분만 사전전화 요망

010-8360-8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지하철 역세권 (도로인접 2층)
- 평수 : 50평, 도시가스 (접근성 양호)
- 재래시장 인근, 몸만 오시면
-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2042-4245

대형사찰 급매

- 위치 : 창원역15분, 마금산온천 5분거리
- 총면적 : 20,496㎡
- 가액 : 15억(대출금5억포함), 사찰투자가치 : 35억상당 (창원의창, 내곡지구 경계 평갑상승, 평갑만 20억 상당)
- 5억주시면 등기부등본 이전해드림 (분할납부)
- 10,000㎡ : 대형 대웅전 최신 단청완료 문화재급 단청 원목시공
- 사찰불상 최고급, 탑, 모든 종교시설 일체
- 10,496㎡ : 납골당및 전원주택 일부 개발
- 사회복지원및 타 용도 일부 가능함
- 사찰앞 토지까지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중

010-9647-0723

좋 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별채빼고 양도가능
- 신도다수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부산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구 충무동 골목시장
- 시설완벽, 법당43평, 요사체43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66만원
- 시설비 2천만원
- 6년간 운영한 곳

010-2618-7676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1천만원(절충가능)

010-5550-9725
010-4001-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 평수 : 35평
- 전월세 : 1,000만원
- 월 6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가격절충)

010-9459-9477

절터·산소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3,700만원

010-7628-9997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 부지 : 500평(대지250평)
- 법당(16평),종무소(6평),창고(4평),종무소2(18평 콘크리트 건물 신축),요사채+휴게실+창고(30평),산신각
- 가액 : 4억 5천 만원
- (북원주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역 (2,4호선)
- 먹자골목, 교통최요지
- 2층 평수 30평, 시설 완비, 즉시 강좌,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125만원
-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9150-2284

아주 오래된 전통암자 안내

- 충북 괴산, 뒤는 산, 앞은 면사무소, 시장, 학교
- 종교용지, 등기 900평(1천평 사용)
- 대웅전, 지장전, 삼성각, 요사채, 목조단청
- 신도있고 공원같이 아름다운 암자
- 스님이 연로하시어 양도합니다.
- 1억 5천 안고 3억 3천
- 합 4억 8천(절충가능)

010-3535-7906

토 굴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어떤 언어도 갖다 붙이지 말고 들어오는 대로 먹어 치워라



그림 · 최주현

애기를 하려니까 항상 기초적인 문제에 관한 건을 애기를 아니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항상 들어도 요것을 가지가지로, 그 한생각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요 믿는다는 것이 생각에 의해 틀어져서 둘이 될 수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선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는 연관성이 있거든요, 믿는다는 것도.

요건 애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애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박카스를 여기 놨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 박카스를 아무 소리 없이 먹는 것입니다. 상대와 상대가 있을 때는 이게 반드시 먹어지는 거죠? 먹고 넘어가는 거죠? 먹고 빈 병을 놓는 거죠, 놔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먹지 않고 놓는 거하고 먹고 빈 병을 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요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빈 병을 놓는 거하고 담긴 거를 그냥 놓는 거하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든 거나 안 든 거나 다 놔라." 한 거는 이 전체가, 일체 만법이 동일시한 그 자리를 넘어선 그 자체에 의해서, 그 자체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든 거나 안 든 거나 모든 걸 놓으라고 했습니다. 맡겨 놔라.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이것이 든 거나 안 든 거나 다 일심에서 나고 드니까 모든 것을 일심에다 놓고서, 즉 "맡겨 놓고 거기를 믿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선, 그러면 맡겨 놓기만 하면 되느냐 이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인제. 그런데 거기에 맡겨 놓는다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맡겨 놓고 가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를 넘어선 까닭에 편안하단 얘깁니다. 동일시를 넘어선다. 이 모든 것을, 이게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을 무조건 믿고 거기에서 들고 나는 거를 다 맡겨 놨기 때문에 그 일체의 모든 들고 나는 것에서 넘어섰다 이겁니다. 여기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맛을 보려야 맛볼 겨를도 없죠. 놓기에 바쁘니까. 맡겨 놓기에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묘미가 있는 것은, 때에 따라선 나는 지금 여러분이 '아프다, 가난하다, 우환이 끊는다, 인과응보다' 이런 문제들이 너무 사사건건이 많으니까 애석해서 볼 수가 없어. 나는 돈도 싫고 아무것도 싫어, 본래는. 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마는 여러분이 아후, 여기 병이 나서 이거 어떡하느냐, 뭐 어쩌고, 이거 죽으면 어쩌겠냐 이럴 때 난 어떤 때는 여기에서 웃음이 자꾸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아이, 살기 싫다도 없지마는, '뭘 그렇게 애틋하게 그러나?'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뭐, 더 산다 덜 산다 이런 것도 느껴 보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생소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날 때가 있죠. 허허허….

나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깐 때에 따라서는 스쳐 가는 그 바람이 너무 세. 아파. 쓰려. 이럴 때에 나도 여러분과 같이 쓰린 느낌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 말을 안 하고는 또 아니 되겠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담긴 것이 들어오걸랑은 먹고 빈 병을 놔라 이겁니다. 또 안 담긴 게 왔으면 '여기는 당신이 하는 거니까, 내공에서 하는 거니까 이걸 담아 주는 것도 당신이지.' 하는 거를 생각하고 놔라 이거야, 빈 병을 놓더라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모든 일체 생활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아주 극치적인 괴로움이 올 때도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요것을 반드시 빈 병으로 먹고는 놓고, 빈 병이 오면 담겨질 것도 믿고 들어가라 이거야. 믿고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놓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한 가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를 겸해서 할 수 있다.

예전에 내 그런 말 했죠. 부처님께서도 그때는 물리가 터지질 않고 지혜가 그렇게 풍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효도하는 법이나 충성하는 법이나 또는 이 물리가 터지게끔 유(有)의 법을 다 가르치셨거든. 계법을 가르쳐 가지고, 그다음에 50%의 무(無)의 법을 유의 법으로 한데 끌어들여서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다음에 이 무의 법과 유의 법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해서는 참 그게 당연해요, 그때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머리가 깨이고 발전이 되고 이런 까닭에, 즉 말하자면 일체 만법이 그 돌아가는 동일시에서 넘어서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자기로 인해서 억겁을 통해서, 끊어짐이 없는 옛부터 나를 형성시켜서 나온 한 점의 그 근본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 점의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낼 수 있는 까닭에, 우리가 지금 별의별 걸 다 하고 울고 짜고 야단난 것이 바로 그 까닭이거든.

그러니 좀 더 우리가 한 치라도 재빨리 놀자. 재빨리 하자.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것이 됐다면, 아, 스스로서 내가 잘 돌아가서 이게 하나가 왔다고 한다면 '아! 참 감사하다. 이게 당신이 있기 때문에 왔지.' 당신이 아니라 내공의 그 당신이야. 자기가 당신이 되고, 즉 말하자면 상구보리 하화중생 했던 셈으로 사량적인 나가 있고 사량적이 아닌 참나가 있다고. 그래서 무루의 참자기와 유루의 자기가, 즉 말하자면 항상 같이, 이게 마음이 유루의 마음과 무루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놓으라면 유루에도 무루에도 내놓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게 넘어갈 때에 이것이 담긴 것이 온다면, 이걸 잘 납득을 하셔야 돼요. 담긴 것이 오더라도 먹고 놓고, 안 담긴 게 나오더라도 이것은 바로 담아질 거다. 믿어라 이거야. 담아질 거다. 팔자도, 모든 것은 내공에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고 아무것도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팔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팔자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나 이런 모든 언어를 거기 갖다가 붙이지도 말고 몰락 들어오는 대로 먹어 치우고 마는 거죠. 빈 병도 먹어 치우고 담긴 것도 먹어 치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니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못나게 한 것도 그놈이 한 거고 잘나게 한 것도 그놈이 한 거고, 업이 있다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업을 안 지었다 하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모든 게 그놈이 하는 거니깐 그놈한테 아예 놓되 감사하게 놓고, 먹고 치우고 먹고 치우고 다 먹어 치워라 이거야. 그런다면 거기에서 참 좋은, 그 자기의 참마음이 스스로서 만법을, 스스로 용을 할 수 있는, 아무 기탄 없이 그대로 집어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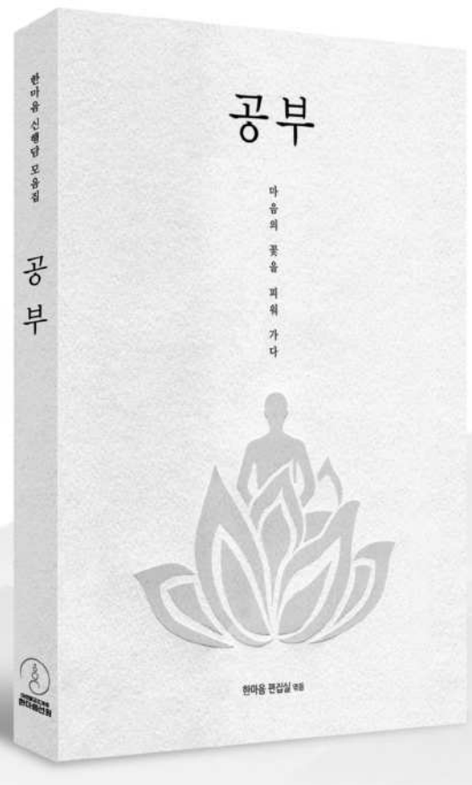
엊그저께 애기했죠. 물이나 산이나 이 혈맥이 있는데 이 몸으로 비유한다면, 건성적인 혈맥이 있고, 세포가 건성적인 세포가 있어요. 또 그 한 꺼풀 속에 건성적인 게 아니라 중성적인 세포가 또 있다고요. 그 속 내부에, 즉 말하자면 정말 동맥과 정맥이 그냥 막 흐르고, 맥이 흐르죠?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 산의 혈맥도, '산' 하면 지구가 벌써 동일하게 돌아가요. 지구가 있음으로써 그 혈맥이 있는 거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뚱이와 같이 지구도 그 속에는 혈통과 모든 오장육부의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그런데 이 산을 지관이 본다 이럴 때는 이 겉 맥만 보는 거예요. 겉 혈관이라고 할까? 건성 혈관만 보는 거죠. 그래서 건성이라는 것은 "산이 맥이 이렇게 흘렀다." 이게 건성이거든. 맥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흘렀다 그런다면 "맥이 흘렀구나. 그래서 이것이 흘러 버렸으니깐 여기는 복이 담길 수가 없어." 이러거든. 이 맥은 건성 맥이기 때문에 흘러 버렸다 이건데, 우리가 전기를 가설할 때도, 여기 지금 코드 꽂는 데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코드 꽂는 데만 만들어 놨지 가설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디고 가설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 데나 꽂아서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해 놓은 데나 들어와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혈맥이 그렇게, 우리가 침을 준다 하더라도 딱 꽂아서 침을 줄 데가 있고 침을 못 줄 데가 있죠. 그래서 요런 정수리나 눈, 눈에 정기가 들어오는 곳이 요기 양면에 있고 이 대뇌에 먼저 듣는 수신기가 여기에 있다 하면 그러한 문제, 송과체나 청과체가, 청각이나 백각이 머리에 다 이렇게 있고 그렇듯이, 우리 산맥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건성 맥을 본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술수라고 볼 수

☞ 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자기 근본을 진짜로 믿어서 정말 하나도 남김 없이 몰락 놔라

☞ 17면에서 계속

밖에는 없는 건성 맥, 지관이 볼 때에 겉 맥만 보지 속 맥은 못 본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우리 이 공부한 사람들은 겉 맥을 보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옵니다. 겉 맥을 보지 않고 속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지팡이로 탁 찍으면 그대로 그 자리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겉 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속 맥에서 딱 찌르면 벌써 혈은 거기…. 우리가 저런 가설을 할 때도 저기 다 해 놨지만 때에 따라서 줄을 다른 데다가 이어서 코드를 꽂게 만들어 놓으면 또 그대로 불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맘대로다 이거야, 맘대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맘대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자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인제 겉 맥이다, 중맥이다, 대맥이다 이러는 문제가, 지금 저 하늘에 별들이 있는 것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고 그렇듯이 이 땅의 혈맥도 사자혈이 있고 사슴혈이 있고, 이름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붙이되 그것도 또 맞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의 산이 있으면 사자의 혈도 있고 거북혈도 있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여 놓는 것은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한 집 한 집이 따로따로 있는데 큰 집에 가설이 된 집도 있고 작은 집에 가설이 된 집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에는 동맥이 들어가 있고 작은 집에는 아주 조그만 소맥이 들어가 있죠. 또 어떤 회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동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자혈이라고 하고 또 작은 거는 중혈, 이런 것은, 즉 말하자면 사슴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인혈, 족혈, 풍혈, 무슨 지혈 이런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오혈! 사람도 오혈이 있듯이 '오혈'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집, 개인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 공부 한 사람들은 개천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위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이게 개천이죠. 근데 그 밑을 본다면 맹숭맹숭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혈이다, 수혈, 또 오혈, 불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 지금 땅속에 말입니다, 즉 입관을 해서 딱 묘지를 쓴다 하면 어떤 게 나쁜가 좋은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정혈, 이것은 좋은 맥에서 산의 흙이나 모든 것이 인체를 묻으면 한데 한마음으로 뭉쳐진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잘 썩고 또 자손들이 잘된다는 뜻이죠. 전기가 같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혈맥이 만약에 저런 코드가 없는 그런 아무 데나 묻어진다면 전기가 통하질 않기 때문에 그 자손들한테도 그런 게 영향이 다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빛을 못 보고 산 사람도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산을 찾는 거죠. 맥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맥이 따로 없다고 내가 항상 그러죠. 팔자 운명도 따로 없고 맥도 따로 없다. 그러면 내가 그럴지언댄 일체 만법이 다 그렇고 산맥도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그렇게 봐서…. 또 어떠한 혈은 우리가 꼭 과학적이라고 안 그래도 사실이 그런 겁니다.

속에서 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지구에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일 킬로에, 즉 말하자면 감각을 두고 이렇게 여며졌다. 그럼 거기서 분비물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분비물이 나오니까 그것이 자꾸자꾸 가스로 화해서, 이것이 깊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고, 즉 몇 킬로가 되는 데도 있고 몇 킬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물속은 이 지구의 거리가 조금 얕게도 될 수 있고 이 육지로는 더 높게도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백팔십 미터 정도로 밑에 수증이 흐른다. 깨끗한 물이 흐른다. 정혈을 다 할 수 있는 물이 흐른다 할 때는 거기에 입관을 시키면 참 좋다. 그건 수혈이기 때문에 청혈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불혈이다 하는 것도 혈에다가, 어떤 사람의 팔에다가 묻어 놓는다면 팔을 쓰지 못한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혈을 막아 놓으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혈이 있을 때는 뭘 뜻하느냐. 혈을 혈이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건 이름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땅속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이렇게 표면으로 탁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땅속에서 숯 굽는 것처럼 타 버리거든요. 그렇게 타 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속에서 타지 않는다면 우리 금은보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석탄도 나오지 않고 또 온수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가스도 나와서 우리가 전기로 쓰고 온수도 나오면 또 쓰고 우리 인간에게 다 주어져 있죠. 석탄도 나오고 또 기름도 나오고 보물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뭐, 별거 별거 다 나오지 않아요? 수정도 나오고. 그런 것이 바로 숯 굽듯이, 그 속에서 바깥으로 풍기질 않고 탔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바깥으로도 얼마나 화산이 많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수억의 집이 그냥 땅속으로 막 들어갔습니까? 우리 한국만은 그냥 쪼그마한 지진에 불과했지마는 딴 데는 참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역이 얕은 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혈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한 것을 보고서 거기에 어떠한 입관이 된다면 빨리 그 열기가, 힘이 거기에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차원에 의해서, 그것도 생명의 차원에 그 혈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이 집안이 잘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혈을 찾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공부 하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그대로지. 그대로 내가 생각하면, 생각을 먹고 놓든지 안 먹고 놓든지 이건 자기 마음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 생명이 생기기 이전에 지수화풍으로 뭉쳐질 때도, 그때에 지수화풍으로 뭉쳐져서 우주가 형성될 때에도 우리는 거기에 같이 있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갖추어져서 우리가 눈도 빤딱거릴 수 있고 귀도 있을 수 있고 오관을 통해서, 오선을 통해서, 감각과 기관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맘대로 살 수가 있는 건데, 맘대로 살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는데 자기네들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해 놓고 자기네들이 모르는 겁니다. 굼벵이도 자기가 그렇게 애를 쓰고 매미가 돼 나와 가지고서는, 굼벵이가 자기를 매미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매미로 만들어 놓은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렇게 자유권을 가졌으면서도 그 자유권을 흥미롭게 자기가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법이 얼마나 좋은지 그대로 법이다, 그대로. 그대로 부처님 법이고 그대로 중생 부처가 둘이 아니다. 선장과 오장육부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그대로, 이 오장육부의 생명들의 그 마음이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내 선장이라는, 인간이라는 마음 하나가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것은 한데 모였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거야. 그러니 자유자재껏 써라 이거거든. 중생 부처가 따로 없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나오는 요 미묘한 법이니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그대로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저 담기는 대로 내가 묘미 있게 잘 활용을 한다면, 활용도 그대로 우리가 지금 활용을 하는데 활용을 하면서도 활용하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이 저런, 활용법부터 배워!" 이러거든. 이 세상에 나오면 활용법부터 배운다고. 걸음마를 떼. 먹을 걸 달래. 벌써 젖 빨려고 고개를 막 흔들거든요. 그것도 활용이라고. 왜? 쪼끄매서부터 나오면 벌써 눈 반짝거리고, 혓바닥 날름거리고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 활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공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즉 말하자면 시공을 초월한 거기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거, 먹을 때 먹고 빈 병 내놓을 때 내놓고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중략)

옛날에 이런 예도 있었죠. 어느 스님께서 "너, 아침 죽을 먹었느냐?" 하니까 "예." 이건 벌써 먹지 못한 거거든. "예." 했단 말이야. "너, 등잔 좀 가져오너라." 이런다면, 아니, "등잔 좀 가져오너라." 했으면 벌써 불을 켤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등잔 좀 가져오너라." 해도 등잔만 놓고는 불도 켤 줄 모르는 거야. 이 식이나 똑같습니다. 등잔이 있으면 사람의 손이 가야 하고 성냥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삼합이 맞아야 맞아 돌아가는 거죠. 뜻과 행과 말, 이 삼합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 먹었느냐?" 하니까 "예." 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마디를 재차 아주 안타깝게 "그럼 식기는 닦았겠지?" 또 "예." 그럼 그건 아주 팡이죠. 갖다 주는 밥도 못 먹는 겁니다.

> **맛있는 건 먹고 놓고 안 맛있는 건 쏟아 버리고 놓고,**
> **그러다 보면 그건 역력하게 활용을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 **그게 바로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걸 맡겨 놔라 하니까 그저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맡겨 놓는 거야. 빈 병이나 든 병이나 그냥 막 그냥, 응? 그래 놓곤 "아무리 맡겨도 안 됩니다." 이거거든. 야, 빈 병은 그대로 놓을 수 있지마는 담긴 병은 좀 먹고 놓으면 어떠냐 이거야. 좀 그거 지혜가 안 돌아가, 응? 그거는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아쉬우면 자기네들이 할 일이지. 빈 병이든 담긴 병이든 주면, 담겼으면 벌써 자기가 알아서 '이건 먹으라고 준 거구나.' 하고 감사하게 먹고 놔야지. 그저 담긴 것도 그냥 갖다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 어떡해요, 그거를? 자기가 먹지 않고 놓은 거를. 벌써 지났단 말이야. 지나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러느냐면 "아휴, 저는 맡겨 놨는데도 안 되더군요." 이러거든. 벌써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자동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걸 얼른 마시고 탁 놔야 또 돌아가는데 이거 먹지도 않고 그냥 놓은 거야. 그 스님께서 "죽 먹었느냐?" 할 때 "식기 닦았습니다." 했으면 벌써 먹은 거라. 아니, 그걸 몰라,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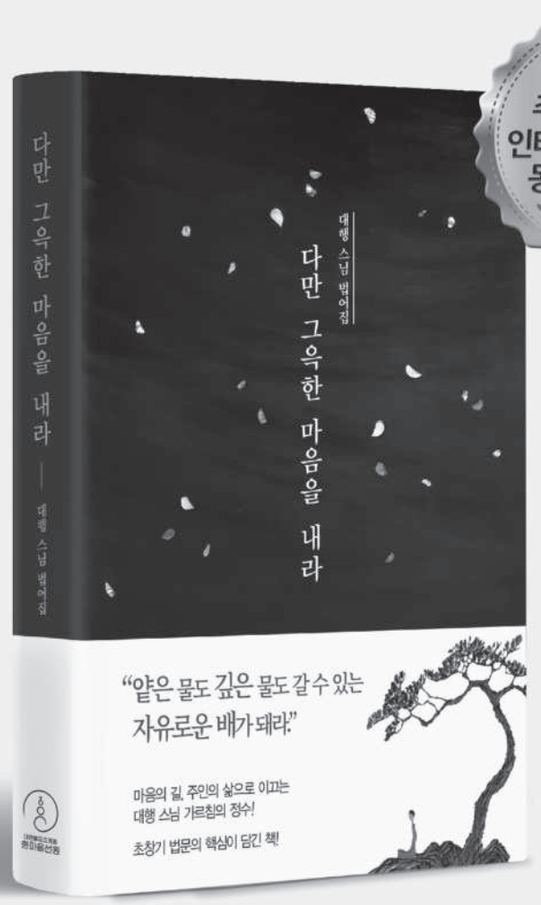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 뜻이, 여기에서 물리가 터져야 되니까 모든 것을 여기에서 내가 믿어서, 진짜로 믿어서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몰락 놔라 이거야, 몰락 그냥! 몰락 놓는데 "몰락 놔라" 하는 속에 담긴 것도 있고 안 담긴 것도 있고, 부패된 것도 있고 뭐, 별거 별거 다 있어요, 몰락 놓으라는 그 속에. 그러니 그거는 생각대로들 하세요. 먹고 놓든지, 맛있는 건 먹고 놓고 안 맛있는 건 쏟아 버리고 놓고 이렇게, 자꾸자꾸. 그러다 보면 그건 역력하게 활용을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익하고. 그게 바로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는 겁니다. 공용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개별적인 생각 그것은 힘이 없지만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푹푹 솟습니까?

그러니 항상 얘기를 해 드리듯이 저 코드가 저렇게 있어도 우리가 저거를 낄 줄 모르면 안 돼요. 끼었다 뺐다 할 줄 모르면, 끼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거고 빼는 것도 그놈이 하는 건데, 몰락 놓으랬으면 끼는 것도 놓은 거고 빼는 것도 놓은 겁니다. 거기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 다 놨는데 불 켤 때는 끼고, 자유스럽게, 또 켜지 않을 때는 빼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쓰는 그 자체가 바로 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대로 무심으로 그래도 그대로 놓으면서, 자유롭게 쓰면서, 바로 자기가 완전히 그것을 체험하면서, 자기는 자신이 생기면서, 아주 도도하게 자신이 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도도하게 설 때가 빳빳하게 설 때죠. 빳빳하게 설 때가 한참 돌아가다가 아, 이게 넓히다 보니까 '아하! 이 물감 오십 가지가 다 여기에 들어 있구나.' 하고 '이 백지에 그림을 다…, 이 오십 가지의 물감이 여기 다 들어가 있구나!' 그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백지더라 이겁니다. 허허허.

그래서 그 백지에 수많은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도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꺼번에 그 백지 안에 들어서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공용하고 공식하고 이렇게 해서, 쓸 때는 그냥 와락 이리로 끌어서 쓸 수도 있고 와락 줄 수도 있고 쪼끄만 데는 쪼끄만 데대로 줄 수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활용이라는 자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에 생활을 하는 이 활용이, 즉 말하자면 건성 활용을 하느냐, 지금 저, 외(外)의 활용을 그대로 내공으로부터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실상으로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법인 거죠.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1986년 7월 5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용수 스님의 아침편지

진정한 수행

수행과 삶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가족관계와 직장생활과 자원봉사 모두가 수행의 길입니다. 좌선과 기도 그리고 집중명상을 하는 이유는 삶에서 더 깨어있고 인간관계를 잘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좌선할 때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알아차리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수행은 기도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수행은 이론으로만 남으면 안 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행의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지견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Self-integration) 이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명상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Life-integration)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이라고 합니다. 지견, 명상, 행,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진정한 수행이 됩니다.





진광 스님의 길 위의 풍경들

⑬ 수미산 순례– 라싸서 시가까지

"짜시달레, 카일라스!"

영진 스님과 함께 한 수미산 순례
80여 명 스님 동행… 카일라스로
수미산으로 가는 길, 기대감 '만발'

카일라스 수미산이여! 그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에 담은 채 열망했던 순간이던가! 몇 번이고 라싸까지 가서 수미산으로의 순례를 시도하다가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드디어 '영진 스님과 함께하는 수미산 순례'를 만들어 80여 명의 스님들과 함께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례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사실 교육원장이었던 현응 스님께서 해인사 주지로 가시는 바람에 졸지에 교육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행자교육 회향식도 치러야 하고 보름간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에 함께한 것은 이번 기회가 내 삶과 수행에 있어 일대 전기가 되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중국 쓰촨성 청뚜(成都)를 경유해 티베트 장족자치주의 성도인 라싸(拉薩)로 향했다. 비행기 안의 창문을 통해 바라다 보이는 설산의 장관은 실로 장관이다. 일순간에 영혼마저 맑고 신비롭게 정화되는 듯하다. 라싸의 관문인 궁가공항에 도착하니 어느 외계의 혹성에 착륙한 듯이 몽환적이고 신비스런 느낌이다. 해발 3,600여m의 황량한 산하에 오색의 타르쵸만이 바람에 휘날린다.

버스로 티베트 최초의 사찰인 삼예사(桑耶寺)로 향했다. 알룽창포강을 따라 가다 예전엔 배로 건너던 곳을 다리를 건너 버스로 내달린다. 길 양편에는 사막의 모래를 막는 돌무더기와 함께 군데군데 피어난 키 작은 야생화가 지천으로 피어난채 저마다 실존의 아우성을 내지른다.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 시집의 "바람이 분다.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듯하다.

삼예사는 마치 지상에 만다라를 형상화한 모습이다. 이곳에서 티벳 최초의 스님이 수계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삼보를 이루고 티베트 불교의 새벽을 열었다. 또한 '삼예대논쟁'이 펼쳐진 곳으로도 유명하거니와 신라 정중무상의 선법이 바셰, 세르난으로 전해지면서 우리와도 무관치 않은 곳이다. 지난번 순례 때는 그것을 기리는 추모제를 가졌지만 이번엔 그조차 할 수가 없었다. 이번엔 수미산까지 반드시 가야만 하기 때문에 분란을 피하고 간단한 입재식만 올렸다.

예전에 이미 참배한지라 회랑에 걸터앉아 일진 스님과 잠시 쉬고 있는데, 한족 관광객들이 위엔화로 우리에게 공양금을 올린다. 티베트인도 아닌 한족에게 공양을 받으며 불법의 영속성과 시주물의 지중함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당신이 만든 나라에서 당신의 초상이 새겨진 지폐가 이렇듯 불사에 쓰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캉사원 옥상에서 바라본 라싸 포탈라궁의 모습.

삼예사를 나와 라싸 시내로 향한다. 시내 입구에서 바라다 보이는 장엄한 포탈라궁의 위용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말없는 포탈라궁은 관세음인 듯 혹은 반야용선처럼 그날도 눈부시게 아름답기만 하다! 영원의 님을 만나는 것처럼 환희와 찬탄의 마음으로 "짜시달레!"라고 인사를 건네며 살포시 미소짓는다.

라싸에 들어가 조캉사원에 들러 문성공주가 가져온 12세 조오 석가모니 불상께 참배하였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 최고의 성지로 모든 티베트인의 정신적 귀의처이자 순례의 최종 목적지 구실을 한다. 옥상에서 바라보는 광장과 포탈라궁의 풍광이 아름답기 그지없다. 특히 조캉사원 주위를 도는 빠코르 코라 순례객과 하루종일 오체투지를 하는 티베트인의 신심과 원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근처에 라싸인이 사랑하는 '인민차관(人民茶館)'에 들러 수요우차나 텐차를 마시고 국수 한그릇 먹고 싶어진다. 아니면 6대 달라이라마가 사랑한 양치기 소녀를 기리는 '마지아미(瑪姑阿米)'라는 카페에 들러보고 싶다. 아니 조캉사원 근처에서 경문을 파는 티베트 어머님을 찾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첫날부터 고산증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스님들이 속출하여 응급대처에 정신이 없다. 한번은 겪어야 할 통과의례라 생각하고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우주의 중심인 카일라스 성지를 순례하려면 이 정도는 참고 이겨내야만 한다. 다만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정히 신심과 원력으로 기도하고 염원할 따름이다.

다음날 세계 최대의 승가대학인 드레풍사(哲蚌寺)와 티베트식 토론법인 변경(辨經)으로 유명한 세라사(色拉寺), 그리고 포탈라궁(布達拉宮)을 참배하였다. 드레풍사 공양간에서 얻어 먹은 차 한잔과 티베트 스님과의 차담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세라사의 마두명왕에게 아이를 데려와 건강과 행운을 비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그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에서 티베트의 미래와 희망을 본다.

시가체로 가는 길에 무슨 사이클 대회가 있어 암드록쵸 호수를 볼 수가 없어 아쉽기만 하다. 할 수 없이 알룽창포 강을 따라 간체로 가서는 바이이쥐사(白居寺)와 십만불탑을 참배하고는 시가체로 향한다. 가는 길에 수박을 파는 행상을 만나 잠시 버스를 멈추고 한바탕 수박파티를 벌였다. 수박 한 덩어리에 모두들 행복한 표정들이다. 이곳 어느 고개에서 천축을 다녀오던 오진(悟眞)이란 신라 구법승이 길가에서 입적을 했다고 하니 추모의 정을 한 줄기 바람에 부친다.

티베트 제2의 도시인 시가체(西喀則)는 판첸라마가 주적하는 타쉴룬포 사원이 있는 곳이다. 지난번처럼 묘령의 종업원이 각 방을 두들기며 "할로우, 모닝콜"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다. 어쩌면 그것은 스님들의 신심과 원력에 대한 관세음보살님의 응현(應現)이 아니었을까? 무언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면 곧 이루어지는 법이다. 어젯밤 꿈속에 카일라스 수미산이 장엄히 자리한채, 불가해의 미소를 지으며 함께했듯이 말이다.

"짜시달레, 카일라스여!" 그대를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한마음으로 당신 품에 달려가옵니다!

〈조계종 교육부장〉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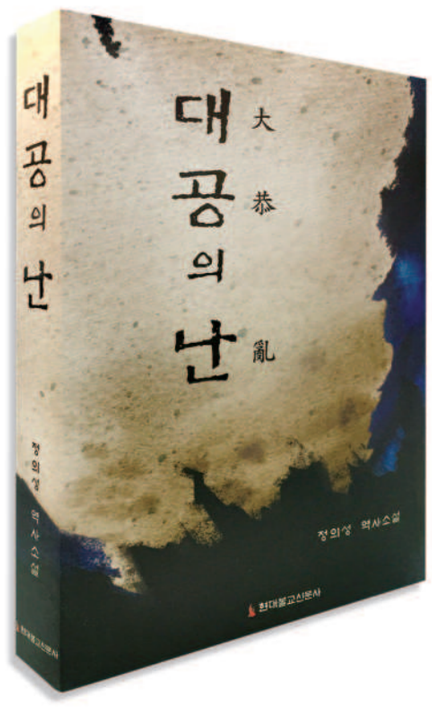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마하몰 ☎ 02)732-1520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